

교지서강 81호 2021 여름

프리즘



교지서강 81호

발행인 구지혜
주간교수 황화상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교지 <서강>

디자인 펍&혜람
출판 / 인쇄 펍&혜람

발행일 2021년 9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우정원 지하 115호 교지 편집위원회

soganggyozi2@gmail.com

table of contents

여는 글

학교

코로나 유행
교육적인 학교의 교육적이지 않은 민낯
서강대학교, 이제는 비건으로 다시 태어날 때

사회

무한 정상성 궤도
먹거리로서의 세계, 먹거리로서의 나
참된 즐거움과 욕구
우리라는 가면 뒤의 배타심
인류가 존속해야 하는가

문화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는 법
왜곡된 시선
미나리 그리고 우리

여는 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대학이라는 공간이 해체되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 준 교지편집위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즘은 빛을 통과시키면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이 눈앞에 보이도록 빛을 산란시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빛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로 갈라지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재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칫 지나가면 잘 인식하지 못했을 일들이 프리즘이라는 관점을 거치면 눈앞에 형형히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안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그 색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세계에는 우리가 무심코 넘겨본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프리즘을 써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사회라는 무색의 빛을 프리즘에 비춰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가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81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하나의 비대면 학기에 아쉬움을 남기며,

2021년 8월 25일 교지서강 편집장 **구지혜**

학교

코로나 유행

교육적인 학교의
교육적이지 않은 민낯

서강대학교,
이제는 비건으로
다시 태어날 때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발표된 지도 어언 1년 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정부는 의심 증상 메뉴얼,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등을 하나씩 확립해가며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확산 초기 우리가 정부에 보탠 신뢰, 그리고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되도록 약속을 연기할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안정된 상황에 접어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통일된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코로나는 기어코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열자마자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확진자 수 그래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월별 평균 확진자 수는 매일 일정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들쭉날쭉하다 계속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 몇 십명의 확진자가 기록되고 100명대가 지속되었을 때 친구들과 별별 별며 약속을 미루었던 것이 기억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커지는 숫자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지금은 100명으로 줄어들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해야 할 판이다.

이 와중에 국내 백신 유입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었고 백신 접종률은 예상보다 더뎠지만 효과가 있는 듯해 보인다. 7월 이후 1차 이상 접종한 고령층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백신이 코로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이나 사망은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신이 코로나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딘가 낯설다. 단순히 코로나 유행이 오래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주위가 설새 없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혹은 유행이란 본디 '철이 지난' 것들을 만들기 때문일까.

우리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기 전, 혹은 맞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불안한 만큼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놔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중국인, 종교인, 게이, 2030 세대. 그렇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행은 따로 있었다. 유튜브에 한동안 유행했던 중국인이 박쥐를 먹는 영상, 픽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바이러스가 대소변으로도

전염된다는 루머, 집단 감염으로 지목된 특정 집단을 향한 마녀사냥 등 우리의 불안 혹은 분노의 '심적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 물론,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은 단순 루머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응 또는 비판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행을 만들어내는 심리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염병과는 관련 없는 일들을 끌어 오기도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그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다. 왜 코로나가 가짜라고 믿는건지, 왜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심문하듯 묻게 된다. 감염병은 혼자만 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협조'를 강조하게 된다. K방역의 성공 신화도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 덕분이라는 말이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인 신뢰는 다방면으로 연결되어있는 '망'이다. 거짓말을 해 사회와의 신뢰를 깎다는 학원 강사에게 우리 사회는 그의 양심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은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도 자신의 신분, 직업, 평판 등에 아무런 상관 없이 없을 것이라는 안위에 대한 불신을 제공했다.

걸렸을 때의 공포심이든, 나만 편하게 행동하는 이기심이든, 사회적인 협조를 해야 하는 이타심이든, 모두 전염병이라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준다. 인정해야 할 것은 나 또한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단순히 '내가 걸려 죽을까 봐'하는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리전'을 떠나서 주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마녀사냥'이 강물 흐르듯 바뀌는 동안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어떤 이들, 자영업자, 의료진, 취준생 등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치사율은 1.1% (2021.07.15.기준) 정도이다. 고령층이 백신을 맞으면서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델타 변이가 어마무시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총 2회를 모두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에 제법 준수한 수준의 방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상황도, 정부의 수칙도, 마스크를 끼는 것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확산 초기에 비하여 패닉의 정도도 줄어들었으며 일상생활의 변동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확진자 수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몇백 명이 늘어나면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을 고안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밤 10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적발될 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직계가족 제외 5인 이상, 8인 이상, 3인 이상 금지 등... 인원수로 제한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에서도 거리두기를 하여 자리를 배치하거나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확진자가 밤 10시만 되면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5명 이하라고 하여 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없을 것이라는 법도 없다. 정부의 수칙은 감염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세운 약속같은 것이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종의 불편함을 참으며 수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행처럼 계속 바뀌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은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실이 되기도 하였다.

작년 9월 한 달 넘게 지속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 되자 카페의 책상과 의자가 모두 덮여져 거미줄 같은 테이프로 감기게 되었다. 카페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빵집과 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 향했다. 애꿎은 프렌차이즈 카페의 매출은 30% 감소하였고 '커피는 안 되고 빵과 같이 먹는 커피는 되는'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피씨방, 헬스장, 립살롱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의 영업

시간, 동시대 수용 인원 등이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수개월 동안 수차례 달라졌다. 현재 운영 마감 시간은 오후 10시로 문을 막은 듯 하다. 기존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던 식당이나 주점같은 가게들은 그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올해 7월과 8월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다. '코로나 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합해 모두가 영업을 마친 밤 늦은 시간에 개인 차량을 끌고 와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이에 이어 8월에는 경남 지역인 창원 등에서도 차량 시위를 이어갔다¹.

우리나라 노동력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가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업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수칙, 상권이라 불리며 모여있는 가게들의 지리적인 특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범위가 다양하다. 배달이 가능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거리두기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과 방역수칙을 무시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들. 그리고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여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게 되자 대학교 주변 상권이 조용해진 것도, 모두에게 똑같은 수칙에 해당된다.

서강의 가게들을 방문하다

우리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초 준비하던 새내기맛이 사업이 중단되고 3월에는 2주 미뤄진 개강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교를 향한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나 또한 기숙사에서 방을 빼고 집에 내려왔다.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출입문을 폐쇄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동문 커뮤니티에서 학교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가 아는 가게도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게도 있었다. 동시에 뉴스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은 여러 사기 피해나 재정난을 겪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¹ 이학준. "거리두기 보이콧' 자영업자들, 부산 차량시위... 오늘은 경남서 진행', 「조선일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안정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정문으로 올라오는 길에 위치한 '개골목'이나 학교 근처 경의선숲길에 자리를 비운 곳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따라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자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탓이었다.

가게 주인과 건물주 사이에 조정돼야 하는 일도 있고 정부에게 책임을 더욱 묻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없어지고, 비워지고, 지워지는 유실에 아파하다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손님이 오지 않아 텅 빈 공간이 된 가게에도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인, 가게의 주인공들인 사장님들이다.

우리는 사회적 렌즈를 통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공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라고 엘리자베스 시겔은 <사회적 공감>에서 말한다. 들쭉날쭉하는 숫자나 금액만을 넘어서 누군가 직접 하는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공감은 생생해진다. 따라서 학교 주변 상권을 나름 오래 지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인터뷰를 청했다. 꼭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만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강대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한지 14년째인 용싸키친과 10년째인 치즈밥잇슈 사장님을 만났다.

〈용싸키친〉

이른 오후 시간 용싸키친을 방문했을 때 한 손님이 '혼밥'을 마치고 있었다. 옆에 유모차가 있었으니, 아기를 재우고 식사를 하러 오셨던 것 같다. 손님이 가고 나서 조용해진 가게를 수다로 채울 수 있었다.

용싸키친: 인터뷰 시작해도 되는데, 손님 가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스: 아 네 ㅎㅎ 게실 때 하면 조금 그럴까봐... 그럼 시작할게요! 가게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건가요?

용싸키친: 제가 지금 14년 차네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여기 (위에)가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았죠 (송문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처음에는 체대를 갔었는데 나중에 호텔조리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 (호텔) 다니다가 우연히 가게가 나와 가지고 여기 완전 황무지였을 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쪽이 완전 개동발이었거든요 (웃음). 후문으로 가는 쪽에 지금 있는 자이 없고 쪽방촌일 때 거의 지뢰밭 수준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스: 그렇게 오래 하신 줄 몰랐어요. 보니까 오래 하신 가게들이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비교가 잘 났을 거 같아요.

용싸키친: 네 엄청 심하죠. 저희 소상공인들이 쓰는 캐쉬노트라는 어플이있어요. 거기서 부가세, 하루 매출, 시간대별 매출, 이런 것이 다 집계가 되는데 그걸로 하니까 매출이 78% 떨어졌더라고요. 10% 떨어져도 난리고 5% 떨어져도 난리인데 78% 떨어졌다고 평균 집계 되어서... 저희한테는 서강대학교가 큰 타겟층이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계속 개강을 일주일씩 미루게 되었고 1주일, 2주일, 1달 이렇게 미뤄졌는데 저희는 이것 준비해서 직원을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인건비도 그렇고 엄청난 마이너스가 났죠.

스: 가게 문을 잠깐 닫으셨죠?

용싸키친: 네. 길게는 안 닫았지만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가 가뜰이나 손님이 없으니까.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서 회사원도 안 나오고 금-토 달고 징검다리 휴일 있을 때 쪽 닫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희 직원도 3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

으로 줄이고 알바도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리고 했으니까.

스: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문을 닫은 이 유가 영업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용싸키친: 그렇죠. 정말 심했을 때 하루 매출이 7000원이었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달는 게 낫겠다 했죠. 또 예전에는 배달도 잠깐 했었어요. 요즘은 배달이 일단 거의 다 하잖아요. 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요. 요기요, 쿠팡, 배민 등 하면 고정 40만 원 (기본 1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 가게가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야지 본전을 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달도 잘 안되니까 (그만 두었죠).

그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배달을 하던 곳에서 주도권을 다 잡고 있고 저희는 리뷰도 안 쌓여있는 상태에서 배달을 하는 거니까. 신규업체라서 찜 이런 것도 없고 그 틈새를 파고들기가 아무리 장사를 오래 했어도 오프라인으로만 오래했지 좀 어렵더라고요. 댓글 알바들도 많아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았네요.

스: 여러 가지 힘들어 있으셨네요.. 다른 쪽 (개골목)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용싸키친: 여기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너무 버티는 게 스트레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열어놔도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14년 하면서 처음이었거든요 이런적이.

코로나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었어요. 1-2주 전부터는 중국산 김치 때문에 손님들이 한 마디씩 하고 가세요. 국산 김치라 해도 배추가 국산이지 나머지는 중국산일 건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커거든요. 4배인가 그래요. 저희도 상황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계속 매맛고 있죠.

5인 이상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작년 10월쯤 1.5단계였을 때 조금 나왔었거든요. 대학원생분들 모임도 하시고. 영업 시간도 예전에는 기본 12시였고 단체 손님들 늦게 가시면 2시면 2시, 3시면 3시까지 있고. 지금은 10시까지라고 해도 9시 반에 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 10분쯤 되면 달는 편이죠. 저희도 마음을 해야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9시였다 10시로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역 수칙들도 그렇고 앞집에 피시방도 거기서 머물다가 식사하러 오시면 감염원은 여기서보다 더 오래 머무른 곳에 있을 텐데 대화하기에 저희도 무섭고 그렇죠. 나라에서 만든 수칙이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사: 그러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방역 수칙들이 조금 있었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혹시 가게 관련해서 기억남는 에피소드 혹은 서강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옹싸키친 :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서 딱히 큰 건 없었고요. 아, 코로나 걸리셨던 분 있네요 (웃음) 대학생 단골 분이셨는데 확진 판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사도 받고 소독도 하고..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 오신 거였는데 다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다 나와서 왔다고 그랬네요. 이전에는 뭐 대학원생들 많고 오셔서 단체로 회식자리 가질 때 저희도 지켜보면 재밌죠.

또 요즘 기숙사는 열잡아요. 지금 꽃도 폈고 그래서 가만 보고 있으면 커플들 지나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되네요. 예전에도 항상 커플로 오던 친구들이 있는데 메뉴도 뭐 먹는지 아니까 미리 찍어놓고 자주 보고 했어요.

근데 어느새인가부터 여기 앞을 지나가는데 혼자다, 가게에 안 온다 하면 속으로 '아 헤어졌구나' 하는 거죠. 학생 중 기억에 남는 친구는 샘 오취리가 있죠. 예전에 JTBC에서도 홍보해 줘 가지고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매일 혼자 왔었거든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뭐 여자친구 바뀌는 히스토리 이런 거 다 보게 되죠 (웃음).

저는 아무래도 이쪽 상인이다 보니까 남문 열어달라고 건의해 주는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은 가게가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강빌딩이나 학원분들, 회사원들, 교직원분들이 오셨는데 학원도 문 닫고, 서강빌딩 안 오시고, 거의 찾아오는 사람만 상대를 하는 실정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치즈밥잇슈〉

오히려 졸업생 분들에게 더욱 친숙할 치즈밥잇슈. 약 1년전 자이아파트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다. 그럼에도 사장님들께서는 여전히 서강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있었다.

사: 어떻게 서강대학교에서 〈치즈밥잇슈〉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치즈밥잇슈: 지인의 소개로, 서강대까지 오게 되었어요. 2012년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0년차 하고 있어요. 본의아니게 원래 있던 건물이 신축작업을 거치는 바람에 가까운 곳을 찾다가 20년도 2월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가장 불편하셨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치즈밥잇슈: (그 전에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19가 오고 학교가 비대면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줄고, 그에 따라 저희 수익과 직결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업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기보다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국민들,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었어요.

단지, 저 쪽(이사 오기 전 건물)에 있을 때는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장소도 협소해서. 근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 포장 및 배달을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들어와서는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들어오고 나니까 신입생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워요.

사: 학생들이 직접 와서 먹고 가는 그런 풍경들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치즈밥잇슈: 그렇죠. 처음 할 때는 선배가 후배를 데려와서 밥사주고,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밖에서 줄서서 대기하기도 했어요. 심하면 30분정도(웃음). 장사가 잘되어서 옆집에서 시샘하기도 했었어요. 그때가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생들도 개인 생활들이 뚜렷해진 것 같아요. 시대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풍습은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성향이 보여진 것 같네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학생들 취업문제도 따라오고 장래에 대한 고난을 때문에랄까요. 저의 느낌은 그래요(웃음).

사모: 그럼에도 잊지않고 방문해주는 학생들도 있죠?

치즈밥: 그렇죠. 저번에도 학교 근처 왔다고, 생각나서 왔다고 하면서 매장에 들러 준 졸업생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보면 얼굴 알고 이름 아는 학생들이예요. 자주 오는 학생들은 4-5명 같이 다니니까 눈에 익죠. 그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데, 나이 먹으니 오지랖이 되더라고요(웃음). 나이대가 다 아들 딸 같으니까, 표현이 과해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부모님이 얘기해도 싫을때가 있을텐데 그래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좋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요. 메뉴도 돈 안받고 추가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선배가 후배에게 추천해주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베풀어야, 학생들도 기분 좋게 왔다 가니까.

사모: 학생들이 사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치즈밥있슈: 저희가 바랄게 무엇이 있나요. 잊지않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저희가 바라는 것 보다는 서강대 학생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역시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학생들(웃음). 예전에 항상 홀이 바쁠때에 실수로 계산 못하고 나간 테이블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계산해주고 다시 가요. 지성인이 괜히 지성인이 아니야(웃음).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올바르게 행동하니까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넘어갈 순 있지만, 진실은 하나잖아요. 결국 들통은 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졸업생들이 찾아올 때도 빈손으로 안와요. 음료라도 사오고 그러는게 고맙죠.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베풀고, 또 학생들이 자주 찾아와주면 너무 좋아요.



가게를 인터뷰 한지도 어언 수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코로나 유행'은 계속되면서 풍경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식들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을 그들에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버티달라고 전하고 싶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은 사회의 공생관계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안일 것이다.

참고자료

김연희, "거리 좁혀오는 델타 변이,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시사인』 2020.07.07
김혜원, "거리두기 강화로 카페·빙집 매출 급락... 위기에 맞는 구석은 배달 서비스" 『업다운뉴스』 2020.09.07.
이학준, "'거리두기 보이콧' 자영업자들, 부산 차량시위... 오늘은 경남서 진행", 『조선일보』 2021.08.26.
엘리자베스 A시걸, 안종희 역, 『사회적 공감』, 생각이음, 2019.

가게 정보

용씨키친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길 11
02-701-5878

치즈밥있슈

서울시 마포구 송문길 98 마포자이3차상가 115호
02-719-9993

교육적인 학교의 교육적이지 않은 민낯

글 한수민

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 이념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창의'와 '창조'라고 한다. 필자가 다녔던 학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중학교는 '창의, 성실, 자유'가, 고등학교는 '꿈', '창의'가 학교에서 내세우는 교육 이념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학교가 강조하는 '창의', '꿈'이라는 이념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이 아닌 '성과'에만 목을 매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밀어 넣고, 학교의 교칙은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짓밟고 있다. 즉, 이 단어들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활자'로만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 중고등학교가 가진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즉 '교육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파헤치고, 학교 내 발생하는 학생 억압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발생하는지 탐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 자유 억압하는 불량교칙

필자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별점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 교칙은 등교 시 학교 교복만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제작한 체육복을 학교에서 입는 것조차 제한이 있다니. 꽤 황당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들의 복장을 제한하는 교칙들은 무수히 많다. 또 다른 예로, 필자가 다녔던 학교에서 겨울 시 교복 외투(일명 마이)를 무조건 입어야 했다.

학교 체육복 규제, 교복 외투 강요는 필자 학교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교칙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교칙을 한 번씩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날도 추운데 따뜻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마이를 왜 입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학교 체육복은 사복도 아닌데 왜 수업 시간에 입지 말라는 거냐' 등, 학생들의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칙을 가지고 있다. 복장과 두발, 생활습관은 물론 학생 개인의 사생활과 대인관계까지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교칙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의 질서와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강요되고 있다.

학교 교칙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용모, 즉 복장과 두발에 관한 것이다. 학교에서 제작한 교복이 있는 학교의 경우, 동복 착용 기간과 하복 착용 기간을 학교에서 정하고, 학생들은 이에 따라야만 한다. 이 기간은 학생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전히 선생님들의 주관적 의견에 의한 것이다. 기간에 맞춰 교복을 입는다고 끝이 아니다. 치마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치마 길이 규제에 따라야 한다. 몇몇 학교에서는 치마를 입을 때 신는 스타킹도 규제의 대상이다. 스타킹을 신는 시기를 정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살이 비친다'는 이유로 커피색이나 살구색 스타킹을 금지, 오직 검은색 스타킹만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다. 또 어떤 학교는 봄이나 가을에는 살구색 스타킹을, 겨울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을 것을 강요한다. 계절에 따라 신는 스타킹의 색깔까지도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것이다. 심지어 교복을 입을 때 입는 속옷을 규제하는 학교들도 있다. 서울시 의회 문장길 의원에 의하면, 서울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가, 여고 85개교 중 22개교에서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머리끈이나 양말 색깔을 규제하는 교칙들도 있다.

앞서 살펴본 황당한 교칙들의 기저에 놓인 생각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생다움'의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 '학생다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복을 단정히 입어야 하고, 지정된 색깔의 머리끈, 양말, 스타킹만을 신는 등, 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와 사회가 규정하는 '학생다움'은 '단정함, 양전함' 등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학교가 강요하는 '학생다움'의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교칙들 외에서도, 학교 안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화장 검사를 생각해보자. 많은 학교는 학생의 화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학생의 화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화장이냐'와 같이 화장을 하는 행위가 '학생답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화장을 규제할 때,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때 화장을 해라."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더러 있는

데, 이는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달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라는 의미로 들린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한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다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생답지 못한 학생'을 색출하려는 의도로 행해진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다운 것'과 '학생답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두드러진다. 소지품 검사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술이나 담배와 같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한 물품들도 있지만, 고데기, 화장품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도 많았다. 학교가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학생답지 않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물품인 화장품과 고데기를 압수해가는 것이다. 반면 책이나 필기구 등 학습에 필요한 물건은 '학생다운 물품'으로 규정되고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소지하는 물품조차 '학생다운 것'과 '학생답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규제한다. 학생 개인의 소유인 화장품과 고데기를 압수해가는 것도 황당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가 학생 개인의 재산을 뺏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학생들의 용모를 규제하는 교칙도 문제지만, 이를 규제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학교는 등교 시 학생들의 용모를 검사하고,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점을 준다. 등교 시 행해지는 용모 검사가 그나마 '공식적인'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비공식적인' 검사도 흔하게 일어난다.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검사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용모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용모 검사를 할 때,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훑는 시선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시선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또 치마 길이를 재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다리에 자를 가져다 대는 행위나 의자, 계단 등 특정 위치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훑는 시선에 익숙해질 것을 강요한다. 규제 과정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이 발생하기도 한

다. 지방의 한 사립여중에 재학한 g씨는 “입학하자마자 신입생들에게 의자 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한 뒤, 선생님과 선도부가 치마 길이를 살폈다. 치마가 짧다고 생각되면 선생님들이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 단을 뜯어내기도 했다. 선도부들은 신입생들의 머리카락을 들추며 귀결이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용모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 말했다.

화장 검사도 마찬가지다. 화장 검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클렌징 티슈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의 얼굴을 붙잡고 화장을 지우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강압적일 뿐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혹자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학교가 많이 나아졌으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교칙들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완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교칙의 삭제와 완화가 곧바로 진정한 학생 인권 보호와 학생 자유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현재의 개선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과거의 불합리를 근거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래의 진보를 방해할 뿐이다. 게다가 현재 완화되거나 수정된 교칙들 중 상당 수는 학생 권리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염색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조차도 부분적인 허용에 그친다. 검은색과 최대한 비슷한 어두운 갈색 계열의 색깔만 허용하거나, 색깔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밝은 색깔의 머리는 규제하는 식이다. 실제 지방의 한 고등학교는 두발 자유화 학교였으나, 한 학생이 민트색으로 염색을 하자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것이며, 검은색으로 염색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화장도 마찬가지다. 화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존재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장을 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화장 관련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부와 입술화장만을 허용하거나 정확한 규정 없이 ‘너무 진한 화장’

은 금지하는 식이다.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자유를 온전히 허용하지 않고,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규정해, 해당 수준을 벗어날 경우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 여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완화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허락’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허용과 허락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에서 학생으로 살아남기

한국에서 학생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살폈던 부조리한 교칙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입시를 위해 끊임없는 학업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입시는 큰 부분이다. 학교 또한 학생들을 소위 명문대에 합격시켜, 학교의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명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지방의 한 사립학교는 최근 ‘모의고사 반’을 만들었다. 이 반은 전교 1등~10등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이다. 이들은 기숙사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 학생들과는 구분되는 보충수업을 듣는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y씨는 최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특별반을 보며 “입시에서 전교권만 몰아주는 느낌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밑에서 그들을 비취주는 것 같다”며, 학교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학교가 성적으로 학생 간 위계를 구분하여 교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교내 성적이 대학입시로 직결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이는 더 노골적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의 학습실 자리와 방을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높은 성적의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필자의 고등학교 기숙사 역시 학습실 자리와 방이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되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방은 다른 방에 비해 훨씬 넓었다. 심지어 학기 말 성적을 기준으로 학기마다 방을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좁거나 학습실에서 거리가 먼 방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학생들은 바뀐 방배치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성적 변동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잦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줄 세울 뿐 아니라, 성적으로 기숙사 방을 배치하거나, 특별반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간 위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특별반 조성은 학교 차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보인다. 소위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학생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입시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입시 결과로 학교의 평판을 다질 수 있고, 다음 해 더 많은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생각해보면, 학교는 '교육'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별반 조성과 학교의 만연한 성적 차별에 대해 필자는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핵심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이다. 즉, 기숙사의 넓은 방, 특별반 수업 등은 상위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일종의 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주어진다. 학생 개인의 노력과 같은 '과정'은 철저히 무시된다. 학생의 능력이 오직 성적으로만 치환되는 입시제도 하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대우는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능력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공정한 제도로 등장한 능력주의는 최근 여러 불평등을 야기했고, 이는 '능력주의가 정말로 공정한 제도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능력주의 자체의 공정성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능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옳은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옳지 않다. 능력에 따라 보상과 대우를 달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다. 학교는 기업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이다.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적이 낮은 학생들

에게 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학교가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의 획일화다. 학교 내에서 능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능력주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적, 단 하나뿐이다. 당연하게도,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은 성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글을 잘 쓰는 학생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높은 성적뿐이다. 사회를 다양하게 하는 개인의 여러 재능 중 일부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일부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된다.

학교는 학생 개인의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 간 '이성교제' 규제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연애를 여러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학교 교칙은 학생 간 연애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데, 구글창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라는 문구만 붙여 넣어 검색해도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의 규제 교칙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칙들은 학생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시, 교내 봉사나 벌점 등 학생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이었다. 연애는 인간관계의 일종으로, 학생의 사생활이다. 학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학생의 사생활까지도 감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행위가 불건전한가? 불건전하다는 것은 단지 교사 개인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이는 처벌의 일관성도 없을 뿐 아니라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학생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고, 학생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던지, 하더라도 은폐해야만 학교생활 속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따라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규제 교칙은 학생들의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더 나아가 사회는 청소년들의 연애에 왜 이리 민감한가?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누구나에는 어린 나이의 청소년도 포함된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연애가 학생답지 않은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서 ‘불량교칙’ 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학생다움’이라는 역할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생 개인이 이 학생다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생다움에는 단정함, 예의 바름과 같은 용모와 기질뿐 아니라 ‘학업에만 열중함’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즉, ‘학업에만 열중해야 할’ 학생이 연애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 간 연애는 학생을 학업에만 열중하지 않게 만들어, 학생의 명문대학 입학에 방해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 청소년 연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다. 학교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단속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청소년 ‘불순 이성교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던 건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청소년의 정치성을 제거해야만 했고, 청소년을 혁명의 주체에서 규율 가능한 존재로 변화시켜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국가 사업에 명시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규제는 주로 풍기문란,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경향신문에 의하면, 불순 이성교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크게 5가지로, ‘1. 성적문란과 퇴폐 풍조, 2. 임신중절 및 미혼모의 증가, 3. 사생아의 처리 문제, 4. 성병의 만연, 5. 강요된 결혼, 범죄의 증가’였다. 임신중절, 사생아 처리 등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두려워한 청소년 불순 교제의 가장 큰 위험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교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한국에서는 서구 사회가 성적 문란과 불온의 상징으로 여겨졌기에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성문화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청소년 미혼모나 임신중절 문제는 불온한 서구 사회의 문제로 취급,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정권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관리, 규제했으며, 더 나아가 불순 이성교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고 여겨 가족 구성원 전체를 정권의 규율,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청소년 이성교제를 불순과 퇴폐의 상징으로 여기며 개인의 삶을 통제했던 군사정권의 지침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현재 학교 교칙이 청소년 이성교제를 불온하다고 여기며 관리한다는 점에서 군사 정권의 청소년 이성교제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역시 청소년 이성교제와 성교섭을 걱정하며 무작정 연애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당 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교나 교사 개인이 인지하더라도, 과거의 교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교칙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교사는 “교칙을 매년마다 바꾸지만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한다. 많은 이들이 얽혀있는 교칙을 바꾸자는 건 변화를 요구하는 일인데, 이 변화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변화를 원하는 교사들도 쉽사리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의 시간만이 멈춰 서 있다.

3. 혐오가 만발한 학교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학교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평등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길 바랐고, 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했으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혐오를 학생들에게 주입했다.

앞선 ‘불량교칙’ 편에서 다루었던 교칙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자. 몇몇 학교에서는 ‘살이 비친다’는 이유로 치마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살구색, 커피색 스타킹을 금지했고, 여학생들이 입어야 할 속옷을 규정했다. 속옷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옷에 비치는 컬러 속옷을 입거나 속옷을 착용하지 않을 시 학생에게 별점이 부과된다. 몇몇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불편함을 주는 색상’의 속옷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흰 옷을 입었을 때 속옷이 비치면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인성 지도 차원에서 속옷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들은 모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회가 강요

하는 특정한 '여성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속옷이 비치는 걸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속옷 규제를 당하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를 그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스타킹 규제 사유 역시 '살이 비쳐서'로, 신체가 타인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도 빈번히 일어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 98%가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으며 19%가 소속 학교에 동성애 금지 정책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학교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교칙과 차별적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양산하고 있었다. 2016년 중고등학교의 윤리시험에서 '성소수자 찬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 해당 문제는 성소수자 반대 의견의 근거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성소수자가 성문화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교실엔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고, 성소수자 학생들도 있다. 해당 문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정체성만이 옳은 것이라 강요했다.

두발 규제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해당 발언은 동성애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조장하며(짧은 머리의 여성 = 동성애자) 이를 근거로 숏컷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4. 학교가 변화하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의 교육적이지 않은 민낯들을 살펴보았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를 재학했던 독자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해본 민낯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은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잘못된 건 맞는데, 몇 년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대학생이 좋아."라고.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대학생이고, 성인이니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부조리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하게 해두자.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고 '몇 년만 참고 기다리면' 얻게 되는 조건부 권리가 아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짧든, 길든 왜 일정 기간동안 개인의 권리가 당연하게 침해되어야 하는 건가?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청소년도, 수험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가 조건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대학생은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생 인권침해와 아무 연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학교 내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사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 차별이 사회 속 차별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학교에 반영되기도 한다. 즉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필자와 독자들도 학교 내 인권침해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학교 내 인권침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마르틴 니컬러 목사의 시의 "내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문제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야기해주듯이 말이다.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학교 내 문제의 원인이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성적으로 위화감을 주는 것은 사회가 학벌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교 내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의 문제는 절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고,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정치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교육, 입시제도의 변화 같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해결 주체를 주로 '교육사회 구성원'으로 한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미성숙한' 어른들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학생다움'이라는 추상적 기준에서 학교와 사회가 탈피해야

한다. 학생다움이라는 말로, 학교의 전통과 질서를 강조하기보다 학생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후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학교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 학교 내 불필요한 위계질서는 잘못된 과거의 교칙을 방치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입을 막는다.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내 선생님들 간,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권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 내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인권조례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한국 학교들에서 '상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실제 조례의 내용이 개별 학교의 교칙과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조례 속 내용이 개별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꾸준히 학교를 감시, 경고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일어난 학교를 상대로 학교 내 교칙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2012년에 제정했지만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계속 수정해왔으며, 인권 옹호 조사관을 임명, 적극적으로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 지표와 민주주의를 결합해 학교의 인권 상황을 체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을 지지하고 따를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한국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서울시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학교가,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논의의 과정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논의하고, 시도하다 보면 우리의 학교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바람직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류수민, "박정희 정권기 청소년 불순/이성교제 담론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쫓겨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 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2021.03.31.), 「한국일보」
"포니테일 아해서 금지"…학생 제보 인권침해 사례 들어보니, (2021.03.31.), 「매일경제」
"색깔있는 속옷, 보기 불편하니 금지" 여학생 인권침해 학교들, (2021.03.18.), 「여성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소수자 존중은 인권의 '알파와 오메가'…개신교가 소수자의 '피난처' 됐으면", (2021.05.04.), 「뉴스앤조이」

영상자료

2016,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한다?>, 닷페이스
2019, <에이틴 현실판 (=연애금지)>, 그거알? ggrm?

서강대학교, 이제는 비건으로 다시 태어날 때

글 서리태

비건? 채식주의?

비건(Vegan)이란, 동물성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말한다. 이는 채식주의와 유사하지만, 또 다르다. 먹는 것에만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돼지는 먹고 고양이는 키우고 코끼리는 동물원에 넣어둘까? 비거니즘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렸을 때 많이들 읽는 책 중에서 『살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이 있다. 주인공 여자아이는 돼지인 월버를 새끼 때부터 키워서 반려동물로 삼는다. 월버는 살육당하는 고기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돼지가 된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월버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닭들은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의 상태에서부터 암수가 구분되어 수컷이 모두 살처분된다. 알을 낳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암컷들은 닭장에서 불과 1~2년간 매일 알을 낳으며 살다가 죽는다. 놀라운 사실은, 닭은 무려 8년을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할 때, 비유하자면 25살에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아직 창창한 미래가 있는 시기인데 이들은 남의 음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소는 20년을 살 수 있지만 18개월의 짧은 삶을 마감하고 소고기가 된다. 돼지는 12년을 살 수 있지만 6개월만에 돼지고기가 된다. 양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난지 8개월만에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양고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들의 미래는 인간의 밥 한 끼를 위해 단번에 처분된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감성적으로 자극을 받았다면, 그대로 비거니즘을 실천하면 된다. 그러나 비건이 동물이 '불쌍해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만은 아니다. '불쌍하다'는 시혜적인 위치에서 인간은 내려와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같은 지구 위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에게 접근하고자 한다. 비인간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권을 확장시켜서 '동물권'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이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

2021년 올해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섭씨 37도까지 올라간 기온은 식물도 말라 죽이는 정도의 폭염이었다. 모두들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북극곰의 집은 녹아내려간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에어컨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고, 전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이 친환경이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는 끊임없이 산불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관측되지만, 과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식이다. 육식에 들어가는 모든 산업을 보이콧하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메탄 가스 발생 원인중에는 소가 있다. 소를 먹일 곡류를 재배하느라 숲을 밀고, 소들은 여물을 먹으며 메탄 가스를 내뿜는다. 소의 배설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 가스의 양도 엄청나다. 미국의 메탄 가스 배출량의 비율을 보면 가축을 키우며 나오는 메탄 가스가 전체의 2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당장 모든 공장을 닫아버리고 자동차를 쓰지 않고 전기를 끊어버릴 수 없으니,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채식인 셈이다.

채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학식의 일부 메뉴를 채식으로 제공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불교대학이 있는 동국대학교는 채식뷔페를 제공하는 ‘채식당’을 운영한다. 버섯 콩불고기, 야채 춘권, 애호박전·새송이전, 김 장아찌, 쫄면 야채 무침, 열갈이 된장 무침, 들깨 못국, 모듬 쌈, 배추김치, 흑임자죽 등(매일 변동)의 메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자율 배식제로 운영된다. 가격은 학생 7000원, 외부인 9000원으로 일반적인 학식보다는 약간 높지만 뷔페식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서울대학교 감골식당 또한 채식 뷔페가 있는 학생 식당이다.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10년에 문을 열었으며, 가격은 동국대 채식당과 비슷한 7500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생들의 다양한 식이 습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엄격한 비건식으로 식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뷔페식 채식 식당(5000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삼육대학교가 있다.

각 대학별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경북대학교이다. 경북대학교는 비거니즘 동아리 ‘비긴’이 교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비건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채식선택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등을 통해 채식 메뉴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21년 4월부터 두 곳의 학생식당에서 3~4000원대의 채식라면, 채식비빔밥, 콩스테이크 등의 메뉴를 만들어냈다. 조리기구 또한 동물성 식품과 따로 쓴다. 이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민대학교 등에서 채식 메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채식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채식메뉴를 제공하는 사례 등을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 종교적 이유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채식을 실천하거나 동물들의 도살을 막기 위해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다. 또 알러지나 질환으로 여러 가지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생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건 메뉴가 우리학교 학식에도 필요하다.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동물권, 탄소 감축, 건강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주의자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각 나라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채식주의자 수가 75% 증가했으며, 영국은 인구의 12%가 비건 혹은 베지테리안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하는 2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31%가 채식주의자라고 응답했다. 이에 발맞춰 법이나 정책이 실시되는 나라도 많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2019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였고, 네덜란드는 모든 정부 공식 행사에서 채식을 기본으로 도시락, 간식 등을 제공한다(고기를 먹으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에서 비건

들을 위해 채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투복, 신발 등도 동물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제공한다.

서강대, 비건으로 다시 태어날 때

줄여서 '서리태'이다. 서강대 채식선택권 요구와 비건 네트워킹을 위해 만들어진 이 모임은 앞으로 서강대 내부에서 싸고 질 좋은 채식 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채식을 통해 동물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채식인을 생각하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서강대 안에서 서강대 고양이들과 서강대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지 서강

2021년호 여름
81호

사회

무한 정상성 궤도

먹거리로서의 세계,
먹거리로서의 나

참된 즐거움과 욕구

우리라는 가면 뒤의
배타심

인류가 존속해야 하는가

정상성의 궤도에 대한 인식은, 내가 타자화되고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시작된다. 정상성은 내가 어디로부터 타자화되고 있는지 인식하고 출처를 짚어나가며 수립하는 지극히 주관적 개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정상성은 '비정상성'-소수자성의 이항대립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균질하다면 정상성과 소수자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군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두 개념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의 생애사에 따라 천 갈래 만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 즉 정상성과 비정상성은 얼핏 고정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새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든 미디어 환경 - 여기서 '미디어'는 매스미디어만을 일컫지 않는다. '미디어 환경'이란, 화자와 청자의 몸이 아닌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현 상황을 일컫는다. - 속에서 우리는 정상성의 기표들을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체화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정상성을 공고히 규범화한다.

-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진로를 정해 대학생할 내내 이런저런 공모전에 나가 이력서에 몇 줄이라도 더 써 넣어야 한다, 모든 시간에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저금이 아니라 주식을 해야 한다, 개성이 있어야 하지만 남들 정도로 잘하기도 해야 한다, 혼자서 잘 살지 못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삶이 아닌 이슈에 관심이 많다(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

그리고 나는 위에 나열한 것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정상성 규범들이, 미디어 환경 안에서 준거집단(혹은 속해야만 하는 집단)의 영역을 계속 더 높고 좁게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선경, 이내영(2019)에서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가설 중 하나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사회적 지위가설인데, 이 가설을 채택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의 절대적 양보다도 준거집단 내 본인의 소득 위치가 낮다고 판단할 수록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¹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준거집단 내 스스로에 대한 지위 인식이 주관적 계층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

¹ Clark and Oswald 1996; Easterlin 1974; Ferrer-i-Carbonell 2005; Oshio et al 2011. 의 주장을 박선경, 이내영(2019)에서 재인용

그러나 모두가 쫓고 있는듯 보이는 정상성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소수자 또한 순수하게 소수자일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성과 소수자성은 유동적으로 교차한다. 다만 무의식 중에 ‘나’를 둘러싼 내게 보였던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온 것들, 성공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모저모들을 참조해 저마다의 정상성을 조금씩 규정해 나갈 뿐이다.

A

오기 전에 교수님들하고 밥 먹고 얘기 나누다가 “교지 인터뷰가 있어서 꼭 가야 합니다.” 했더니, 뭘로 하네. “정상성의 바깥에 있는 사례로 인터뷰를 한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바깥에 있냐고 막 웃으시면서 정상성 다 폐기하라 그래 하시길래 “예, 그러려고 하나봐요.” 하고 왔어.

1.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통증에의 압도

아팠던 경험에 대해 가장 많이 묻게 될 것 같아. 대부분은 누나가 그렇게 오래 아팠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잖아?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팠다고도 말 못해, 20대 내내 아팠어. 내 병은 기존 체계에서 아직 규명이 잘 안 된 질환이라 진단에서 안 잡혔고, 진단명을 한참 뒤늦게 알았지. 그런데 의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규명이 아직 안 되어 저희가 모르는 질환입니다.”가 아니라, “네가 예민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 정신과를 가라.” 였고, 근데 정신과 약을 오래 먹어도 차도가 없었거든.

마침내 진단명을 알았을 때의 감정이 기억 나?

안도감. 그때부터 세상이 세상 같게 느껴지더라. 다들 나보고 미쳤다고 하고 나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안 믿었었으니까. 진단명을 알기 전까지는 안 미치려고 통증 일기를 썼었어.

그럼 진단명 받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좀 짐작이 가는 상황이었어?

전혀. 일단 의사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것에 대한 다행스러움이 굉장히 컸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통증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치료법이 나와있을리가 없잖아? 가설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찾아 간 의사가 한 말도 “이걸 하면 낫습니다.”가 아니고 “해 봅시다.” 였어.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한 이후에, 삶의 예측 불가를 정말 온 몸으로 살고 있었거든.

‘내가 진단이 되었으니 이제 나아지겠구나.’가 아니라 ‘진단은 났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내 말이나 내가 느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니까 되게 큰 힘이 됐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모든 삶의 자세에 그때의 경험이 너무 크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때 이후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재배치된거야. 그 전까지는 나도 학벌, 좋은 직업, 명예 이런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아픈 경험 이후로 완전히 바뀐 거지. 다 진짜 부질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쓸데없다는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아플 때나 지금처럼 일을 시작해나가는 시기에, 억울하지는 않았어? 대부분은 그런 기나긴 통증의 경험을 겪지 않고도 살아가잖아.

억울하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왜? 나는 왜? 근데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부러웠어?

내 증상이 어떤 거였냐면, 내내 온몸이 아파. 이유를 몰라.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어쩌다 정신이 들었을 때 친구들 소식이 들려오면 ‘어... 좋겠네...’ 이 정도의 감각과 이 정도 텐션 인거야. ‘왜 나만 이렇게!’ 할 힘이 없어. 하루하루를 잘 넘겨 보자 어쩌면 내일 눈 뜨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감각인거지.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보내는 동안 겨우겨우 하루 버티고 있는 나, 병원 다니고 의사들 만나고, 그게 제일 컸으니까.

비교불가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 같아. 천만분의 일로 발병한다는데. 나와 통증과 병원. 끝.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앞으로도 이렇게 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살 거면 한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지. 어쩌면 나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슬퍼할테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

2. 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후에 아예 인식론적 틀이 바뀌었고, 실제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도 바뀌었잖아? 그럼 아프기 이전에는 뭐가 되고 싶었어?

집에서 내가 고시를 보거나 로스쿨을 가길 너무 바랐어. 중학교 때부터 그냥, 서울대 법대! ‘(자식이) 법대에 가서,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나 검사를 해야 해. 나랏일을 해야 해.’ 이런 집안이었어. 마침 내가 공부를 잘 하기도 했고 그때는 ‘내가’ 바라던 것도 없었어. 엄마아빠의 기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진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

‘나는 법조인이 될 거고 돼야 하는 구나!’ 이게 나의 욕망인거야. 그들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었던 거야. 아프고 나서는 살아있는게 제일 중요했어.

누나를 향한 부모님의 욕망에 반발감이 든 적이 아예 없어?

없었어! 그게 좋아보였고, 나도 잘 했고, 성취가 좋았으니까. 내 적성에도 잘 맞기도 하고. 법이라는게 토론이고, 논박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거고 나는 그런걸 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의 나랑 너무 달라.

중학교 때 호주제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내가 폐지 반대쪽이었어. 명예남성 (웃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반대 측이 보수 기득권의 주장이었잖아. 돌이켜보면 내가 그들에 속하고 싶었던 것 같아. 스스로 가치판단을 내린게 아니라, 그냥 주위 기득권의 논리를 체화했던 것 같아.

완전 다른 사람이야. 한국 남자로 길러졌던 것 같아, 딸이지만 ‘여자니까’를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는 사람. 아버지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밀어줄게. 네가 하는게 다 맞아!” 하면서

나를 정말 그 어떤 집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 더 잘 키웠고, 나는 내가 여성으로 산다는 감각이 20대까지 없었어.

경상도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러니까(웃음). 되게 보수적인 도시잖아. 그 보수성이 우리집에서는 여성을 남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표출된거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되게 많은 걸 누리면서 컸어, 남동생보다 훨씬 많은 걸 받으면서 컸지. 지금의 페미니스트가 되기까지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자식 전폭지지에 주는 사람 별로 없지. 일단 인문대 와도, 경영 복수전공해서 빨리 취직하길 바라지 나처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런 집 별로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집이 재벌이나? 그렇지 않거든. 국가장학금 맨날 신청하고 그렇게 사는데….

고맙지. 근데 그렇게 딸에게 전폭지지를 했는데 거기에 여성혐오적인 면이 있다고 봐. 여성으로서의 현실감각을 전혀 내가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긴 하다.

아빠가 동생한테는 “아, 남자가 이렇게 말도 못 하고, 남자가 이렇게 소심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집이 성차별이 없었던게 아니라 그런 차별적 시각이 남성성에 투영돼서 나타난 것 같고, 오히려 나는 비껴나 있었던 식으로.

나는 정상성의 한가운데 - 서울대, 법대, 주류 - 딱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야. 내 친구들도 다 서연고 나와서 고연봉 금융권 직장 다니거나 변호사, 재판연구원 뭐 그런 사람들이야. 그들이 내 어릴 때 친구들이야. 나도 그때 그랬던거지.

그 친구들한테서 맨날 청첩장이 날아오는구나!

그치! 이번주에 결혼하는 친구도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라 그런가, 그들과 내가 엄청 다르다고는 별로 안 느껴져.

주변 사람들하고 누나 사는 모습이 정말 다르구나. 집안에서도 누나가 별종인거야?

그렇지. 인문대 왔을 때도, 삼촌들이 로스쿨 가지 그거 왜 하나 그랬어. 나만 인문학.

누나 머리는 어머님 쪽에서 온 건가?

그런 것 같아 (웃음). 근데 성격이 아빠야.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성격이 아빠를 너무 닮아서, 아빠를 볼 때마다 동족혐오의 마음이 들지. '아! 피는 못 속인다.'

우리 외할머니가 책, 글을 엄청 사랑하시거든. 학교를 안 나오셨지만, 글 알고, 한자도 알고, 서예도 하시고. 되게 머리 좋고 글을 사랑하셔. 지금도 글을 쓰시니까.

외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이제 여든 막 넘으셨지. 한창이지. 나는 외할머니 닮은 거 같아. 글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땐.

당시 외할머니 집안에 외할머니의 독서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으셨던 거야?

외할머니가 동생이 엄청 많은 집의 장녀야. 평생을 동생 보살피면서 다 대학 보내고, 당연히 그때 당시엔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글이나" 하셨다더라. 그렇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글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아들딸 가리지 않고 자식들 공부에 투자 엄청 많이 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할 수 있게 완전 지지하고 그랬지. 그래서 외가 사람들은 다 잘 살아, 잘 지내. 엄마도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 낳고 나서 시가에서 나를 못 돌봐주겠다. 일 그만둬라 한 거야. 아빠가 그걸 중간에서 잘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은 거지. 짜증나 죽겠어 진짜, 죽기 전까지 욕먹어야 돼 그거는.

누나 수능 치고 인문대 넣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하셨어?

아무도. 모두가 내 모든 선택을 지지해. 나는 자랄 때 늘 그렇게 자라왔어.

3. 교사가 각성시킨 전교1등 레즈비언

아프기 전까지는 계속 성적이나 진로 고민에만 몰두했었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이성애자가

아닌 건 언제 안 거야?

고등학교 때.

늦었구나!

늦은거니? 우리 땐 빠른 거였는데 (웃음). 그때는 말 자체도 별로 없었어. 서울이면 몰라, 경상도 소도시는 그런게 너무 없었지. 전교에 한두명 볼까말까 했어, 여곤데.

여곤데?

그들끼린 알아봤겠지, 근데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고1 때 국어선생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날 불러가지고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아네, 모른다니까 유래를 설명해 주셨어. 사포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는데 레스보스섬에서 여성 제자들을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살았다. 그냥 그런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시더라고. 나를 좀 보셨나봐. 잘 사시나 모르겠어. 그리고 고2 때 이제 연애를 했죠. 그때 알게 됐지.

그때 성적도 망한 거야?

그때까진 괜찮았어. 고3 때 망했지. 모든 걸 뺐어. 연애도 필요 없고 인생이 너무 싫었어. 점수가 안 나와서라기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계속 '나는 시험형 인간이 아니구나...' 하면서. 시험을 풀어야 되잖아. 시험지가 잘못됐다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성격이 그제 안돼. 그러니 문제가 잘 풀릴리가 있나, 안 되지. 근데 나랑 사귀었던 그 친구는 계속 성적이 올랐어.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때 여자친구를 재 되게 나쁜 애 아니냐, 전교 1등이랑 만나더니 지가 성적 다 뺏어가고. 뭐 그랬지. 근데 웃긴게 애들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면 선생들 눈에 뻔히 보이잖아? 근데 내가 전교 1등이니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때는 교육청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이반²검열이라고 내려왔어.

2 이반 =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나, 성소수자 전반을 일컫는 말로 쓰임 cf) 알반 = 이성애자

- 1) 담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2) 담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3) 있다면 이름이 무엇인가요? ()

담배, 술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애가 맨 마지막에 있던 거지. 누군가 내 이름을 썼을 지도 모르지. 그런 짓을 주기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어.

근데 전교 1등한테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해, 누나 이름 현수막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웃기지, 솔직히 뭐라고. 그냥 시험 치면 점수 나오는 건데. 그런데 낮은 과를 써서라도 서울대에 무조건 붙게 해야 학교 실적이 되잖아. 그런 와중에서 동성애? 그때 내가 서울대 수시 가능권에 들었는데, 고3 때 망해가지고 못 넣었거든. 선생님들한테는 그저 그게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고 동성애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만약 내가 성적이 안 좋은 애였다면 난리가 났겠지. 그런 친구가 있었어. 너무나 티부고 맨날 어떤 여자애 허리 안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걔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 늘 요주의 대상이었어. 나랑 달리.

4. 페미의 탄생

누나 학교도 때렸지?

아니? 어우, 어떻게 때려. 내가 맞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여고도 때리나?

여중도 때리는데 여고는 왜 못 때려? 일단 때리는 일이 만연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 젊은 선생님들도 계셨고, 여자 선생님들 많고.

사립이야, 공립이야?

공립!

아~. 경인지방 아닌 곳 사람들이랑 학교폭력 얘기할 때는 사립이 대부분이라.

사립은 많이 패. 우리 동생은 커튼 닫아, 옆드려뻗쳐 하고 각목으로 다 맞았어. 사립이니까 터치가 안 되는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애가 너무 우울해 했어.

그때도 학생인권 관련 뭐 논의되는 바가 있었나?

이반검열하는데 무슨 인권.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인권의 이미지가 노동운동과 거의 비슷한, '편!' 이런 느낌이어서, 전교조선생님들에 대한 시선도 되게 부정적이었어.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을 알아본 적 있어? 억압받는 분위기면 선생님들이 본인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걸 잘 티를 못 내지 않아?

아, 많았지! 젊은 선생님들도 많았고. 나랑 맨날 엄청 싸우던 학생부장이 전교조 해갖고 정적 처분 받고 감방 다녀오신 분이었고, 많았어. 반장이라 교무실을 진짜 많이 드나들었는데 다 보였지. 숨기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거 같아.

그래서 안 뺐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학교는 왜 궁금했던 거야?

누나가 스무살 전까지 계속 명예남성으로 길러져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학교에서 그제 깨지지 않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 나는 학교에서 많이 깨졌거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교복을 입기 시작하잖아. 그럼 여학생은 브라 차고, 메리야스 입고, 블라우스 입어야 되잖아? 근데 가끔 메리야스 안 입고 그냥 브라 위에 하복 상의 입은 여학생한테 선생님이 너는 몸 팔러 학교 오냐고 말하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 내가 영상 쪽 특성화고를 나왔잖아? 제일 친했던 여자친구가 우리 학년에서 촬영을 제일 잘 하는 친구였어. 흠커밍데이라고 일선에 있는 선배들이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여자 촬영감독님이 오신 거야. 찾아가서 걔가 자기 촬영감독 되고 싶다고 말을 했거든. 그때 그분이, 여자 활감으로 살아남는거 진짜 힘들다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

할... 나는 나와 남자애의 영역이 분리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걔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개편다!

멍청하게 살았던 거 아닐까?

차라리 스스로의 소수자성을 모르고 성장하는 편이, 그러니까 내가 소수자로서 가진 특징이나 욕망들이 사회에서 드러났을 때 어떤 벽에 부딪치는 감각이 생기잖아.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깨달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가. 근데 정말 못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페미니즘 이런 운동 왜 하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던거지. 내가 그런걸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서울 와서 정희진 선생님 책 읽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다고? 아닌데? 무슨 차별?' 싶은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서 안에 나오는 '서울중심적사고'라는 말이 아예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지방사람이면서. 신도림, 홍대, 마포 이런 지명들이 아무 설명 없이 쓰인다는게, 서울 사람들은 지방의 지명을 알지 못 해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아예 자각을 못 했던 거지 그전까진.

스무살 때까지만 해도 '잘 하는 자 - 못 하는 자', '뛰어난 자 - 그렇지 못 한 자' 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인간 말종이었느냐, 그렇지 않아. 성격은 지금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많은게 바뀌었지. 가족을 벗어나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가 보이고, 친구들이 들었던 '여자니까 공부 잘하면 교대 가야지.' 이런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

5. 근데, 이런 퀴어도 있어.

서울 올라와서, 성소수자들 모이는 자리를 찾아 다녔어, 안 찾아 다녔어? 왜?

아팠잖아. 근데 아프지 않았더라도 딱히 안 찾아 다녔을 것 같아. 없어도 내 일상에 지장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면 너무 기적적이었어. 하루종일 깨어있는 내내 통증이 있었고. 그때 나한테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 와중에 어떻게 연애를 한 거야?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도 같이 대학을 서울로 와서 계속 관계가 유지된거지. 아플 때 그 친구가 되게 큰 힘이었어.

진짜 집단으로서의 퀴어 정체성에 별 공감도 안 될 수 밖에 없네.

그럴 것 같아. 친구들 다 이성애자인데도 내가 별로 괴리감을 못 느낀다는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내 정체성의 특징이 막 생겨난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딱 그 1:1의 관계, 근데 그 대상이 여자였다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퀴어로 사는 삶의 사례들을 잘 몰랐고, 보지도 못 했고, 그리고 살았지. 미안하네요, 이런 퀴어도 있어 근데.

정말 굳이 커뮤니티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겨를이 없었겠다. 근데 다른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는 욕구가 전혀 없었어?

아니지, 너무 궁금했지. 그 욕구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전에 고등학교 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미드를 많이 보면서 간접경험을 한거지. 해외는 우리랑 인권의 속도도 다르잖아. 한국의 사례는 전혀 몰랐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거의 몰랐지.

신공(신춘공원)이 레즈비언의 성지일 때가 누나 아팠던 시기랑 겹쳐?

거기는 90년대부터 그랬을걸? 근데 나는 지방에 있었잖아. 간혹 그런 얘긴 들었어. H.O.T 팬클럽 활동을 하면 지방에서도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잖아? 그것처럼 성소수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니까 지방에서 버스타고 올라가서 놀다가 내려오고.

근데 나는 성소수자로 사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게 더 컸기 때문에, 별로 머리에 든 게

없었어. 내 안에서의 갈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게 아니라, ‘나 여자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

처음부터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 자각이 엄청 충격적이고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

전혀 아니었고. 좋았어! 아니, 생각을 해봐. 고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니까? 스스로에 대한 거부감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서울 와서, 내 존재가 외부에 그렇지 않구나를 더 느끼게 되지는 않았어?

그건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얼마나 보수적인 도시에서 자라왔는데, 이미 주변이 이성애 정상성으로 너무 흘러 넘치고 있고. 그냥 그 세계는 그대로.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절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개랑 서울 올라온 후에 절연을 했지.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아, 아멘.

신촌 퀴어퍼레이드 기간에 홍대에서 동창들끼리 만나서 논 적이 있어. 근데 개가 “왜 나와서 저렇게 나떨까, 안 보이는 데 가서 지들끼리 놀지.”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개 데리고 나가서 왜 자주 안 보이는데로 가라 하나, 우리가 교회 사람들 보고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해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하니까 울더라.

개가 ‘식’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만남의 상대를 먹는 걸로 생각한다면서, 그래? 나는 그런 말 안 쓰는데? 그리고 그게 왜 나쁜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개는 어떻게든 까 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애랑 나는 앞으로 얘기할 게 너무 없겠다 싶어서 안녕 했던거지. 그게 20대 중반.

20대 중반쯤 아픈 생활에 좀 적응을 해가면서, 레즈비언들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했어. 그때 만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랑 너무 힘들었고, 퀴어로서의 삶보다 ‘여자를 만나는 여자’가 겪는 고충에 대해 털어놓고 물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지. 커뮤니티에서 누굴 만나거나 해본 적은 없지만 글로 대화는 많이 나눴어. 근데 다 폭파됐지. 1인

운영자가 버티고 버티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답습니다.’ 또 새로운 거 생기고 또 달히고.

그 공간이 사라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

원래 친했던 친구들한테 거의 다 커밍아웃을 했는데 다 받아줬어. 그런 친구들이랑 관계 고민 많이 털어놓고. 퀴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이 퀴어프렌들리하나 그렇지지는 않아, 적대적이지도 않지만. 근데 나는 좋아해줘. 그 친구들이 나한테 “여자친구랑 결혼식 와서 밥 먹고 가~.” 이라고.

6. 커밍아웃의 욕망?

확실히 나를 어느 정도 이미 드러낸 후 커밍아웃할 때 결과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그 사람 일부로 받아들여져서 그런걸까 싶네.

아팠던 경험과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이 갖는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아.

내 안에서는 퀴어로서의 정체성보다 아팠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의 소수자성이 더 크게 느껴져. 일단 꼭 나처럼 아파서 10년 이상이 유예된 사람이 성소수자보다 더 드문 것 같고. 인간이 제일 건강할 시기의 10년을 날렸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 불가의 영역이긴 하잖아. 머리로는 ‘아, 그랬구나.’ 하더라도, 그 시간들이 어땠는지 상상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내 나이와 맞지 않는 커리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거란 말야? 예전엔 이게 조금 짜증났어. 이젠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설명 안 해도 되는 지점을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설명해야 하잖아.

그렇지만 그게 한편 지금은 나를 나답게 해주는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망연자실했던 건 맞아, 지금은 아냐. 정신승리가 아니고 정말로. 왜냐면 이때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고, 성격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생기고 변하고 했으니까.

지금 일하는 분야에서 아팠던 경험이나 성소수자로서의 경험들을 털어놓고 싶지는 않아?

못 한다기 보다 안 하고 싶어.

왜?

아픈 사람으로 보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싶어. 그냥 뭐하러. 계속 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 정체성을 씌울 거고,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내 서사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걸 아예 안 하고 싶어.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될 순간이 오진 않을까?

안 올 거 같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생길 것 같기도 해. 가끔은 그냥 냅다 말해 버리고 싶어. 모르겠다. 내가 이걸 절대 말을 안 하고 싶은건 아니거든. 이미 내가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말할 일이 더 생기는 건 좋은 거겠지?

당연하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사람들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이들을 만나고 또 그를 내보이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

먹거리로서의 세계, 먹거리로서의 나

글 M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3

“오로지 먹는 자만이 타인을-위한-자가 될 수 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 〈존재와 다르게〉

앞서 고백하자면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죄는 스타벅스에서 산 잉글리쉬 머핀에 든 햄과 치즈, 초밥집에서 먹은 다양하고도 이름 모를 생선들이다. 또, 녹차 라떼에 든 우유와 아마도 동물에게 실험했을 타이레놀과 목감기 약. 그리고, 어쩌면 고대 동식물들의 사체로 달리는 버스까지? 이렇게 꼽아 나가다 보면 분열증에 이른다. 나를 만든 것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에까지 죄를 짓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빚지고 있으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지만 이런 분열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시원하게 사라진다. 내가 아닌 것을 내보내며 나는 다시 통합되고, 안절부절 똥이 마려웠던 정신은 명료함을 되찾는다.

‘인권’, ‘동물권’과 그 한계

생태 문제가 가장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지금, 인간 외의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문제는 인간 혹은 주체성을 정의하는 데에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나는 그 중 두 가지 답변의 경향을 꼽고자 한다. 하나는 비인간동물 또한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성적 인간, 코기토로서의 인간에 주어진 과도한 권력을 비판하고 지구의 생명체들이 동등한 주체임을 주장한다. 인간은 타 존재자들에 월권을 저지르고 있으며, 비인간동물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자율적 행위능력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동물 ‘권’의 담론이다. 그러나 시초를 꼽자면 200년이 되어 가는 ‘권리’라는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옳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권리 개념 자체가 비인간(동물을 포함하여 이성을 가지지 못한 인간, 외국인, 여성 등)과 인간을 가르면서 확립된 배타적 경계를 떠안고 있는 한, 주체성의 폭넓은 ‘인정’은 월권의 확산에 지나지 않을 지 모른다. 나아가, ‘할 수 있음’으로 요약되는 주체성이 오히려 악의 근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욕망을 실현하는 적극적 자아상은 구조적으로 타자를 자신

안으로 포섭하는 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다른 하나는 비인간 동물이 겪는 고통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인간 동물은 불쌍한 자들로, 인간은 보다 시혜적인 자들인 동시에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로 표상된다. 이 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줄여 나가자는 개혁적 태도는 논의에서 제하고자 한다. 고통의 경감을 넘어 주체성의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태도는 앞선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성중심적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들은 권리에 호소하는 대신 주체의 수동성을 강조한다.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이성이 아닌 수동적으로 겪는 감성¹이 근본적인 능력이 아니냐는 것이다. 감성은 인간이나 비인간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보다 보편적일 뿐 아니라, 대상을 표상으로 포획하여 지배하는 이성 에 비해 타 존재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얼핏 이들은 능동적 자아가 아닌 수동적 '처해 있음'에 보다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식물은 어떤가? 혹은 느낄 능력을 잃은 '식물인간'은 어떤가? 나는 비거니즘에 가해지는 유치한 비난 중 하나인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라는 질문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느낌'이 어떠한 존재자의 존재 권리를 논증하는 조건이 될 때, 감성의 수동성은 곧바로 '겪음'이 아닌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존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모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첫 번 주장과 결론적으로는 같은 셈이다.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적 권리 개념이나, 혹은 수용적 '능력'으로서의 감성이냐는 차이만 가질 뿐이다. 요컨대 두 입장은 모두 동등성으로 환원되며, 인간과 동물, 주체와 대상을 같은 지평에 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차이를 동일성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동일한 항들 간의 투쟁은 동등성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윤리의 역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비록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동물성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살당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

에 의하지 않는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 한 마리의 동물이 통째로 들어간 것은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밥 가게에서 멸치볶음이 반찬으로 나왔다면 눈을 부릅뜨고 놓친 멸치가 없는지 확인하고, 칼국수에 든 조개들은 껍질을 짝 벌려서 모두 먹었는지 몇 번씩 다시 본다. 비거니즘의 종류 중 한국에 특수한 것으로 비당주의라는 형태가 있다고 한다. 무엇이 들었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국물이나 젓갈에 동물성 음식을 많이 쓰는 식문화 때문에 생겨난 방식이다. 나의 '주의'는 말하자면 비당주의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셈이다. 누구를 먹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은 모두 먹어야 한다. 이유 없이 죽은 자는 없어야 한다는 나의 신조다. 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죽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말하자면, 나를 위한 그들의 죽음이 나에게 먹어야 할 책임을 지우고 있음을 느낀다. 접시 위에 죽어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면 다시금 분열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나는 곳곳이 멸치와 조개들을 입 속으로 밀어 넣고, 소화시켜 나로 만들고, 내가 되지 못한 것들을 배출한다. 한 마리, 한 마리였던 것들은 뒤섞여 나의 밖으로 나간다. 나는 이 분열의 경험,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주체성의 와해, 그리고 언제나 뒤늦은 고백에 집중하고자 한다.

생태계 문제의 역사적 기원

앞서 우리는 이성적 인간과 인간 이성에 의해 해석된 대상의 지위로 존재하는 비인간 동물이라는 구도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인간-주체와 그 외의 대상이라는 구도는 오직 근대적 합리성의 산물인가? 과학과 기술문명 이전의 '자연적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옳은가? 이 문제는 동물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한 운동의 최종적 지향이 무엇인지, 식탁 앞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동물과의 관계 '밖'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린 화이트는 <생태계 문제의 역사적 기원>에서 현대의 기술과 과학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명의 암묵적 전제를 기독교에서 발견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습관은 고대 그리스-로마에나 동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영원한 진보라는 암묵적인 신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유대-그리스도교적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289)." 화이트는 심지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대항마로

¹ 흔히 감성을 뜻하는 pathos는 어원적으로 '겪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감성은 감정이 아닌 감각함, sensibility를 의미한다.

우력을 떨쳤던 공산주의마저 같은 원천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에 노동을 투여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맑시즘은 자본주의나 기독교적 인간상과 크게 변별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유대-그리스도교의 창조 신화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여타 피조물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에게 세계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환경이 아닌 '먹거리'로서 주어진다. 즉 인간에게 인간 외의 것으로서의 세계는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다.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 받는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기원한다. <창세기> 9장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음과 같이 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타 종교에 비해 강한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유대-그리스도교적 관점은 소위 '근대화'로 일컬어지는 과학의 발전과 단절적이지 않다. 화이트는 기술 문명 발전의 원인 중 하나를 자유의지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찾는다. “그리스 성자는 명상을 했지만 서양의 성자는 행동을 했다. 자연의 정복에 대한 기독교의 함의는 서양적인 환경에서 더욱 쉽게 나타났던 것이다(291).” 또한, 13세기 이후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뉴턴, 라이프니츠 등 주요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종교적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작용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실천적 동기가 그것이다. 근대 과학의 동기는 “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고를 생각하는 것(292)”이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은 유대-그리스도교 정신에 의거하는 바, 기술문명에 대한 분석이나 '올바른' 기술의 사용법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화이트에 따르면 생태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명의 종교적 배경, 말하자면 정신적 배경을 살피고 뿌리부터 다시 써야 한다. 그는

흥미롭게도 성 프란체스코의 사상을 새로운 종교적 이념으로 삼는다. 성 프란체스코는 “인간을 피조물에 대한 군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신의 모든 피조물들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려고 했다(294).” 오늘날의 '동물권' 운동가들처럼, “그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지배의 개념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평등성의 개념으로 대체시키려 하였다(295).” 프란체스코의 교리는 곧바로 이단으로 여겨져 진압되었다. 화이트는 비록 프란체스코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생태 문제의 뿌리는 종교적인 것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종교적이어야 하며, 프란체스코가 좋은 대안종교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이처럼 근대적 과학기술은 신으로부터 동떨어진 합리성의 체계가 아니었다. 그 기원에는 세계가 인간을 위해 주어졌다는 믿음이 있으며, 형이상학적 전제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성의 작업은 신에 기대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신의 표상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18세기의 사상마저도 신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학은 신을 죽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니체를 “신은 죽었다”는 말로 기억한다. 그러나 신의 죽음은 신을 형이상학적 초월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을 보장하는 이성의 이념으로 본 칸트에 의해 일어났다². 즉 칸트에 들어서 신을 인간으로 대체하는 일이 일어났다. 니체가 끝맺은 임무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인간의 살해, 즉 초월적인 '신의 자리' 자체이다. 돌아가서, 화이트의 글은 기술의 개혁만으로 자연과의 관계의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익과 쾌락의 최대화 혹은 분배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담론에 새로운 지향을 준다. 비록 그가 '종교'라고 썼지만, 보다 넓게 보자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기술 등 사실적 체계들의 기원이 되는 우리의 믿음체계인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구조 안에서의 논의만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믿음체계에 의해 구성된 언어를 이용한 질문 중 대표격이 바로 “누가 주체가 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2 <실천이성비판> 제2권 제2장 5절 '순수실천이성의 요청인 신의 현존'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주어진 세계와 세계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개종해야만 새로운 질문이 가능하다. 동물을 인간의 자리에 놓는 것은 사상적 퇴보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다만 화이트는 대안적 종교를 생물들 간의 '민주주의'와 '동등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종교는 '믿음'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무전제적 믿음이 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인가? 종교(유일신교)의 핵심은 초월자이다. 종교적 믿음은 본질적으로 지향적 대상을 가진다. 즉 그것은 '~에 대한 믿음'이다. 화이트가 예로 드는 성 프란체스코는 신의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피조물들 간의 평등을 확보하는 데에 그친다. 그러나 비어 있는 초월자의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점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인간이 그래왔듯 말이다. 그렇다면 니체나 그를 따르는 들뢰즈가 그러하였듯, 인간의 권위와 함께 신의 자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답인가? 동일한 힘을 가진 개체들 간의 경합은 윤리를 가능케 할 것인가? 종교는 낮은 자와 높은 자라는 비대칭성을 함의하는 바, '종교적 해결'의 핵심은 초월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질러 말하자면, 바로 타자³가 초월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먹어야만 하는 자들의 윤리

먹히는 자와 먹는 자 간의 투쟁은 존재자들의 세계에서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존재와 정치의 지평에서 선이 가능한가? 정치에서는 동등함이 가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초월자를 상징하는 소위 '종교적', '형이상학적' 지평에서 우리는 "존재 너머의 선"⁴을 발견하게 되지 않는가? 이때 '존재 너머'란 신과 합치한 증세철학적 피안의 세계도, 이성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플라톤적 이데아의 세계도 아니다. 그것은

3 이 글에서의 '타자'라는 개념은 사회학 이론에서 '타자화'와 같은 부정적 함의를 가지지 않는다. 현대철학에서 타자는 주체의 지배력을 초과하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특히 레비나스의 철학에서는 주체의 인식에 포섭될 수 없으며 모든 인식론적, 존재론적 분류체계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따지자면 긍정적인 함의를 가진다.

4 플라톤의 「국가」VI, 509b에 나오는 구절인 "존재 너머의 선(agathon epekeina tes ousia)"은 레비나스에 의해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경제적 실존으로서의 존재함 너머에 윤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된다.

타자와 나의 관계에서 성취되는 역동적 영역으로, 내 앞에 선 자의 얼굴이 나의 의식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초과하고 있음에서 비로소 발견된다.

레비나스의 출발점은 유대-그리스도교적 전제와 동일하다. 먹히는 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세계는 먹거리로서 주어진다. 감각하는 신체로서 살아감은 먹거리의 총체인 세계를 향유하는 삶이다. 감성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한다는 기계론적 자연법칙과 그에 전제된 폭력에서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바로 이것이 윤리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배고픔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궁핍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⁵ 비록 철저한 인간주의자인 레비나스의 윤리적 서사 안에서 동물과 식물은 단지 먹히는 자로서 등장하지만 말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을-위한-자의 실천을 단적으로 "내 입 안의 빵을 주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존재함의 경제, 자신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타인으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테제를 덧붙이고자 한다. 바로 기독교적 성체의 이미지이다.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주며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라고 선언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성체로 예수의 희생을 기린다. 성체화는 다른 말로 이동실체(transubstantiation), 즉 실체의 변화라고 불린다. 즉 예수는 더 이상 몸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타인이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라는 실체가 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윤리적 관계를 위한 이동실체는 세 가지 조건 혹은 단계를 가진다. 첫째, 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물질적 형태가 되기 이전에 주체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존재의 무분별함에 빠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5 이 글에서 영양 섭취, '향유'에 관한 그의 논의는 광범히 단순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성과 무한> 2부 '내면성과 경제'를 참조하라. 결정적으로, 향유라는 감각은 동일자(주체)를 전체성의 존재론으로부터 독립된 자로 만드는 최초의 계기이다. 독립된 자로 존재하는 한에서 동일자는 모든 범주 바깥의 절대적 타자를 그 자체로(kath auto) 만날 수 있다. 이때 만남은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지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음'이며, 상대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교환불가능성과 비대칭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유의 구조는 비지향적이다. 다른 말로, 향유는 대상의 의식에 매개된 표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는 환경인 요소적 세계(élément)에 '빠져 있음'의 사태다. 때문에 향유는 감각이지만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심적 기능과 동일하지 않다.

정립한 자여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줌'이라는 윤리적 제스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자아는 스스로를 주는 행위 속에서 능동적 위치로부터 수동적 처지로 전락한다. '스스로를 줌'을 통하여 자아는 즐길 수 있는 자가 아닌 즐겨지는 대상이 된다. 이는 애초부터 대상이었던 것의 대상화와 다르게, 자신의 존재하고자 하는 노력(conatus essendi)의 역전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함'이 아닌 방식으로 있게 되는 계기이다. 마지막으로, 실체의 변화는 한 번의 주어짐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인 주어짐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줌으로 인해 자아는 더 이상 인격적이지 않고 교환될 수 있는 재화가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쓰였던 재화와 다르게 이제 재화는 비소유의 결과가 된다. 윤리를 통과하며 경제는 타인을-위한-것으로 토대를 변경한다. 반복 가능성은 보편화 가능성을 함의하며, 종교와 윤리는 자신이 정초한 정치와 경제로 나아간다.

폭력이 불가피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잘 죽이는 것이나 덜 아프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죽는 것의 윤리를 제안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더 잘 죽는 것의 핵심은 더 잘 먹히는 일이다. 일상적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그것은 죽기 전에 장기기증서를 미리 쓰는 일이다. 장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건강한 나의 몸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과 함께 조각조각 나뉘어져 건강한 타자들의 몸이 된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다른 존재자 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와 다르게 되는 일이다. 환경을 위해 인간이 다 죽어야 한다는 파괴적 감수성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의 자기파괴적 파토스는 정치적 장 안에서 누가 권리를 가졌는지 조율하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만으로 혁명적 해결은 일어날 수 없다는 계산적 이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 명의 인간이 전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 계산은 쉽게 자포자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치 너머의 윤리는 단 하나, 접시의 얼굴들을 앞에 둔 나만을 책임으로 이끈다. 책임들이 모여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는 관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인으로서의 무기력은 책임 있는 자로서의 자기-자신을-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사회, 국가, 체계에서 벗어난 관계들의 확장이 '현실'을 바꾼다.

이 논문은 즐거움이 혼의 욕구를 원인으로 가지며 그 성질 또한 욕구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즐거움의 '참됨' 또는 '거짓됨'이라는 성질은 판단의 내용에 속하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유래하는 것도 아니다. 즐거움은 판단에도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지향적 태도인 욕구에서 기인하므로 이 지향적 태도 자체에서부터 즐거움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혼에서 유래하는 욕구가 즐거움의 실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냐에 따라 즐거움의 성질 결정된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먼저 참된 즐거움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과 존재론적 해석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욕구의 지향적 구조에 대해 살펴되며, 참된 즐거움에서 혼의 지성적 기능인 기억이 어떻게 즐거움을 '참됨' 것으로 만드는지 확인한다.

1. 인식론적 해석과 존재론적 해석

1) 즐거움에 관한 인식론적 해석

먼저 참된 즐거움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과 존재론적 해석을 검토하도록 한다. 인식론적 해석의 부류는 즐거움의 참과 거짓이라는 성질을 판단의 사실과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 해석자로 프레데가 있다. 즐거움은 명제적 내용을 가지며 참된 즐거움은 명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발생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기적 즐거움으로, 특정한 예상에 의해 즐거움을 얻었으며 그 예상이 미래 시점에 예상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이다. 프레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미래에 대한 쾌락에서 특별한 것은 미래에 대한 쾌락의 경우에만 우리가 문장들(logoi)을 가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문장들만 가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때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문장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예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 자체에서 기술되거나 그려진 것으로서 예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Frede, 1985: 175, 오현석, 2015: 5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현석은 이에 대해 말(logos)이 쾌락에서 주도적 역할을 가지는지 의문시한다. 쾌락 일반은 혼에 의한 예기와 무관하게 이성이 없는 동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현석은 “거짓 쾌락에서 중요한 것은 쾌락의 비이성적 성격(오현석, 2015: 6)” 이라고 특징지으며, 즐거움의 경험에서 우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욕구 또한 가치를 지척한다. “만약 욕구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문장이 쾌락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쾌락에 있어 욕구는 믿음보다 중요하다(6).” 나는 이에 동의하며, 즐거움은 명제 내용으로 환원될 수 없기에 인식론적 해석은 불충분하다고 본다.

인지적 해석의 부류가 놓치는 요소를 예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플라톤은 판단과 즐거움의 유비(37a)를 이항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판단에는 판단되는 것이 있고, 즐거움에는 즐거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판단의 예로 “나는 사과가 빨강하다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판단은 사과가 빨강다는 생각, 판단의 대상은 사과의 빨강이다. 판단의 활동에서 판단과 판단의 대상이라는 두 항의 총합은 명제의 내용을 이룬다. 다르게 말해 판단과 판단의 대상이라는 두 항 이외에 판단에 의해 산출되는 명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즐거움의 경우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사과를 먹어서 기쁘다”라는 현상을 보자. 여기서 즐거움의 대상은 사과를 먹음이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사과를 먹었다”가 아니라, “사과를 먹어서 채워졌다”로부터 온다. 플라톤 자신이 말하듯, 욕구는 욕구의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채움”과 같은 회복의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즐거움은 즐거움의 활동의 요소들의 총합과 같지 않다. 만일 “채워졌다”는 “먹었다”라는 육체적 행위로 환원 불가능하다. ‘채움’은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배고픔이 채워졌을 때 행위자가 가지는 느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진정으로 즐겁게 만드는 것은 욕구인데, 이는 명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즉 즐거움은 즐거움과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즐거움의 경험이 아니라, 욕구라는 즐거움의 동인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단의 경우와 다르게 즐거움은 즐거움과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이항구조로 설명할 수 없으며, 플라톤이 제시하는 판단과 즐거움의 유비는 단지 즐거움도 판단과 같이 참과 거짓이라는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제한해서 이해해야 한다.

2) 존재론적 해석

다음으로 참된 즐거움의 기준을 대상의 순수성으로 두는 존재론적 해석의 부류가 있다. 혹자는 <필레보스>에서 즐거움의 위상을 <국가>와 연관 짓고자 하는 해석은 욕구되는 대상의 순수성에 의해 해당 대상에서 기인하는 즐거움의 순수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의 예로 플레처의 주장을 들 수 있다(Fletcher, 2014). 플레처는 순수한 즐거움이 존재와 생성의 쌍 중 생성에 속하지 않음을 들어 즐거움의 내재적 가치를 보인다. 유사하게, 캐론 또한 순수한 즐거움은 적도에 맞고 혼합된 부류이기 때문에 생성적 즐거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로부터 플라톤에 있어 쾌락주의가 완전하게 거부되지 않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향한다(Carone, 2000). 플레처에 의하면 적도에 맞는 즐거움은 생성이 아닌 존재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오로지 순수한 즐거움만이 속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필레보스>에서의 즐거움을 <국가>에서의 즐거움과 유사한 것으로 두기에 이른다. 플레처에 따르면 플라톤은 신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라는 분류 이외에도, 적도에 맞는 즐거움(순수한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즐거움이라는 분류를 내세운다. 적도에 맞는 즐거움은 이전에 존재의 네 부류 중 세번째, 혼합된 부류이다. 적도에 맞는 즐거움은 단지 혼에 의한 즐거움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기쾌락은 순수한 즐거움의 부류에 들지 않는다. 순수한 즐거움 중에서도 대상은 엄격히 규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51c)”만이 순수한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국가>에서 가지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을 나누었던 것에 비해 <필레보스>에서는 감각을 통해 아름다운 것 자체를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의 격하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논의 끝에 플레처는 인식론적 설명과 유사한 귀결에 이른다. “시각과 청각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인지적 성과인데, 구체적 사물의 지각 뿐 아니라 절대적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즐기는 (appreciate) 문제이기 때문이다(Fletcher, 2014: 130).” 이처럼 대상의 순수성에 의해 순수한 즐거움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행위자 외부의 조건을 참과 거짓의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인지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난점을 지닌다. 즉 순수한 대상을 실제로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전제인 욕구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즐거움의 참됨은 순

수성의 필요조건이기예 대상의 순수성에 의한 즐거움의 순수성이 즐거움의 참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엄격하게 규정된 ‘순수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만이 플라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해석은 순수하지는 않지만 참된 즐거움들이 좋은 삶에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다. 플라톤은 분명히 순수하지 않은 즐거움들도 지성과 혼합한다(63e). 우리는 좋은 것과와 닮음의 위계에서 보다 하등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들도 지성과 혼합될 수 있을 만큼의 내재적 가치는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인식론적 해석과 존재론적 해석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만약 즐거움의 ‘참됨’이라는 성질이 명제적 진술과 사실의 일치 여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즐거움의 참됨은 최종적으로 즐거워하는 행위자 외부의 조건에 의해 판명된다. 존재론적 설명에서는 명백하게 참된 대상에서 즐거움의 참됨이 유래하기에 마찬가지로 행위자 내부의 욕구를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며, 순수한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므로 인식론적 해석과 구별될 수 없는 결론으로 향한다. 내가 보기에 즐거움의 성질은 단지 판단이나 대상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욕구 자체의 성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즐거움이 어떻게 욕구에 의해 행위자 내재적인 가치로서 참된 즐거움과 거짓된 즐거움이라는 성질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내세우는 즐거움의 분류를 보다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참된 즐거움은 명제적 내용의 사실과의 부합이나 대상의 참됨이 아닌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2. 참된 즐거움과 거짓된 즐거움

나는 즐거움을 참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명제적 내용과 사실의 일치가 아니라, 혼의 순수한 운동으로서의 욕구이며, 이때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참된 즐거움은 순수한 혼의 활동인 기억이 가지는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기억은 적도에 맞음에 대한 기억이며, 기억을 통해 욕구는 균형을 지향적

대상으로 삼는다. 더불어 기억은 지성적 혼의 분별하는 활동이므로, 나는 욕구가 지성에 의해 설정될 때 참된 즐거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좋은 것과 보다 닮은 지성이 어떻게 즐거움을 좋은 것에 보다 가깝게 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의 해석에 따르면 즐거움을 실현시키는 몸은 혼의 욕구에 의해 미리 설정된 즐거움을 실현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가진다. 하지만 몸에 의해 실현된 즐거움은 부수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참된 즐거움을 지각의 영역에서 실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며 참된 혼에 의해 목표로 설정된 균형과 적도에 맞는 삶을 실천하는 윤리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참된 즐거움을 실현하며 몸은 적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이 아닌 지성적 혼의 욕구로 향하는 고양을 겪는다.

1) 즐거움과 욕구의 지향적 구조

즐거움의 일반적 성격은 존재의 부류와 생성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제시된다. 플라톤은 나눔과 모음의 과정을 통해 존재의 네 부류를 한정되지 않은 것, 한정된 것, 한정되지 않은 것에 한정된 것이 혼합된 것, 그리고 혼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즐거움은 더함과 덜함을 받아들이는 한정되지 않은 부류, 지성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부류로 판명된다(30c). 다음으로 다루어 지는 것은 즐거움의 본성이 아닌 즐거움의 “생성(31b)”, 다시 말해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즐거움은 어디서 생성 되는지의 문제이다. 존재의 네 부류를 논할 때 즐거움의 본성은 한정되지 않은 것인 첫째 부류로 밝혀졌으며, 즐거움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성상 결합된 부류, 즉 한정된 것과 한정되지 않은 것이 혼합된 존재의 셋째 부류 속에서 생겨난다(31c). 괴로움과 즐거움의 생성 과정은 조화라는 상태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 “조화 상태가 해체될 때, 바로 그때 자연 상태의 해체와 고통의 발생이 동시에 있게 된다(31e).” 또한 “다시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신의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때, 즐거움이 생긴다(31e).” 여기서 플라톤은 셋째 부류 속에서 즐거움이 ‘생긴다’고 표현한다. 즉, 조화 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이 해체되거나 회복될 때 한정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긴다. 구체적 예시로, 배고픔과 목마름은 와해이고 괴로

움이나, 먹는 행위나 수분으로 다시 채우는 작용은 즐거움이다(31e-32a). 앞서서는 혼합된 삶은 셋째 부류, 즉 한정된 것과 한정되지 않은 것의 혼합과 같은 부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27d). 이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은 것들이 전부 한정자에 의해 묶인” 것, 조화 상태를 가리킨다. 즐거움의 생성에서 혼합된 셋째 부류는 살아있는 종류 자체이다. “본성상 한정되지 않은 것과 한정자로 구성된 살아 있는 종류가 와해될 때 괴로움이 생기며 복귀는 즐거움이다(32b).” 즉 적도를 가진 개체로 적절히 혼합되었을 때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한 적도가 사라져 와해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즐거움(첫번째 존재의 부류인 한정되지 않은 것)은 조화 상태(존재의 세번째 부류인 혼합된 것)로의 복귀에서 생성된다. 이때 두번째 부류인 한정자는 조화 상태에 함축된다. 어떤 것이 불균형으로 인해 와해로 이어지는 대신 안정적으로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자에 의해 균형이 잡힌 혼합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의 도식에서 혼합의 원인이 되는 네번째 부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플라톤의 우주론적 유비를 참고하여 원인이 되는 네번째 부류를 지성적 혼에서 발견할 것이며, 이것이 즐거움의 경험에 개입하는 방식은 혼의 기능인 욕구로 해석할 것이다.

플라톤은 욕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욕구들이 있을 때, 몸은 느낌들의 측면에서 혼과 따로 분리된다(41c).” “또한 혼은 몸의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욕구하는 것이고, 몸은 그것의 어떤 겪음(pathos)으로 인해 고통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41c)”이다. 이처럼 지각되는 즐거움에서 몸은 혼과 같은 느낌을 가지지만,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욕구에서 혼과 몸은 분리된다. 우리는 앞서의 인용을 세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몸과 혼은 독립적 기능을 가진다. 둘째, 혼은 욕구를 담당한다. 셋째, 몸은 즐거움의 실현을 담당한다. 그런데, 혼의 욕구는 몸에서 유래하지 않으므로 우우적인 지각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천을 가진다. 나는 이러한 원천이 혼의 지성과 분별이라고 해석하며, 욕구하는 혼의 지향적 대상은 ‘조화’, ‘균형’이라고 본다. 앞선 우주론적 유비에서 지성이 혼합의 원인이자 혼합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혼합 상태로 인한 즐거움의 원인이 되며 즐거움을 좋은(참된) 것으로 만드는 원인 또한 혼의 기능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욕구의 현상에서 작용하는 지성은 우주적 지성이 아니라 개별적 지성이지만 말이다. 이는 왜 좋은 것이 즐거움보다는 지성을 닮았는지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지성이 우주론적 유비 뿐 아니라 즐거움의 경험에서도 원인의 자리에 온다면, 대화편 말미에서 제시되는 좋은 것과의 닮음의 위계는 단지 양적 차이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인의 부류에 가까운 것들을 나열한 이후 생성의 부류에 가까운 것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것과의 닮음의 위계는 질적 차이(존재와 생성)를 함축한다.

2) 혼의 욕구가 왜곡 없이 구현되는 경우: 조화 상태의 회복과 참된 예기적 즐거움

플라톤은 지성과 즐거움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너른 범위를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생에 걸쳐 모든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해롭지 않다면, 모든 즐거움을 혼합해야 하네(63a).” 참된 즐거움과 순수한 즐거움 뿐 아니라, “온갖 덕의 추종자들로서 모든 곳에서 덕에 뒤따르는 즐거움들”, “불가피한 욕구들(62e)”에 따르는 즐거움 또한 지성과 혼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불가피한 욕구들”, 즉 참된 즐거움이나 순수한 즐거움과 다른 것으로 거명되는 즐거움들도 혼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기백은 “불가피한 욕구들”을 식욕이나 성욕 등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욕구, 절제해서 누려야 하는 욕구로 해석한다(플라톤, 2020: 218). 이처럼 지성과의 혼합에는 “참되고 순수한 즐거움(63e)” 외의 즐거움들도 포함되는 바, 이들도 일종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앞서 보았듯, 혼의 욕구는 기억을 통하여 몸의 상태와 상반되는 조화 상태를 자신의 지향적 대상으로 삼는다. 나는 이를 두고 혼만이 하는 활동인 욕구가 즐거움의 이로움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임을 주장할 것이다. 즐거움은 분별하는 지성적 혼의 욕구를 몸이 왜곡 없이 실현하는 이상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즐거움의 원인이 순수한 혼의 욕구가 아닐 경우 거짓 즐거움이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욕구의 순수함이지, 대상의 순수함이나 판단의 참이라는 성질이 아니다. 애초부터 욕구 자체가 몸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일 경우 그에 따른 즐거움도 순수하게 된다.

논의에 앞서, 지각, 기억과 상기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자. 혼의 욕구가 기억에 의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플라톤은 지각은 몸과 혼의 협응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몸이 겪은 것들 중 어떤 것들은 혼에까지 이르기 전에 몸에서 소멸하여 혼으로 하여금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 반해, 다른 어떤 것들은 그 둘 다를 통과하여 각각에 고유할 뿐 아니라 그 둘에 공통되기도 한 진동과 같은 어떤 것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게(33d).” 혼과 몸에 공통된 진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감지되지 않으며, 혼과 몸이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불린다(33d-34a). 또한 기억은 지각을 보존하는 것(34a), 즉 몸과 혼의 공통된 운동을 보존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앞서 분별 없이는 즐거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별하는 활동의 일종으로 기억을 제시한다. 기억은 한때 자신이 기뻐했음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즐거움을 기억으로 남긴다. 또한 판단은 자신이 지금 기쁘다고 헤아리고, 미래에 기쁠지 여부를 헤아린다. 이러한 분별의 활동은 동물이 아닌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다(21d). 이로부터 우리는 지각을 보존하는 기억은 지성에 의한 혼의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몸과 혼이 겪었던 것을 현재적 실존이 없는 형태로 자신 안에 두는 것이라고 해 두자. 더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서(34c)”, “몸 없이 혼이 갖는 즐거움을, 그리고 그와 아울러 욕구를 가능한 확실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34c)”임을 명시하는 바, 앞서 기억이 지성의 활동이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기억은 몸에 보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기는 몸 없이 혼이 혼자서 하는 활동임이 밝혀진다. “혼이 몸과 더불어 한때 겪었던 것을 몸 없이 혼이 홀로 가능한 한 확실하게 되살릴 때(34b)”, 그리고 “지각이든 배운 것이든, 이것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기억을 혼 자신이 그 자신 속에 되살렸을 때(34c)”를 상기라 부른다. 기억 또한 혼의 활동이라고 상정한다면 상기와 기억의 차이는 다소 불분명하다. 잠정적으로, 기억은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겪은 적이 있는 지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면 상기는 보다 너른 시간적 범위인 “한때” 겪었던 것을 “되살리는”, 따라서 “보존”이 실패하였더라도 언젠가

겪었던 것을 되살릴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각은 몸과 혼이 하나의 느낌을 갖는 것, 기억은 그러한 느낌을 보존하는 것, 상기는 하나의 느낌을 몸 없이 혼만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즐거움에서 상기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데, 글의 말미에서 순수한 즐거움에서 상기가 역할하고 있음을 잠정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욕구에서 기억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를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핵심적인 것은, 와해와 복귀의 구조를 가지는 즐거움에서 기억이 욕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욕구는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욕구를 대상 쪽으로 이끄는 것은 기억이다(35c). “모든 동물들의 온갖 충동과 욕구 및 지배”는 “혼에 속하는 것(35d)”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육체적 욕구라고 생각하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겪는 것조차 몸이 아니다(35e). 와해와 복귀라는 일반적 도식에서, 결여를 겪으며 이를 조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대상을 발견하는 능력 또한 혼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혼은 기억을 통해 균형 잡힌 상태의 느낌을 보존하지만 이 느낌은 지금 이 순간 몸과 혼이 동시에 느끼는 것으로 실재하지 않는다. 몸은 혼이 보존한 균형의 느낌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욕구와 같이 자신의 결여를 발견하고 목적을 설정하는 능동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적어도 혼이 제대로 욕구하고 있을 경우(균형 상태를 기억으로 인해 원할 경우) 몸은 즐거움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혼의 즐거움에 부합하기 위한 기관, 자신 스스로는 욕구를 가질 수 없는 기관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플라톤은 “목이 마르다”라는 상태를 와해와 회복에서 오는 즐거움의 구체적인 예시로 든다(34d). 목이 마르다는 것은 “그가 빈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이때 욕구로서의 목마름은 마실 것이 아니라 채워짐에 대한 욕구(35a)이다. 여기에서 이미 욕구는 대상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조화로운 혼합 상태의 복귀이며, 무분별한 섞임이 아니라 적도를 갖춘 혼합에 대한 욕구임이 드러난다. 적절한 혼합 상태는 기억에 의해 발견된다. 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것이 채워짐 쪽에 다다르면서 자신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욕구하게 된다. 그가 만일 빈 상태

만을 겪었다면 다른 상태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다른 상태를 욕구하는 것 또한 필연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몸은 현재 비워져 있으니, 채워지는 것은 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이 말라 채움을 욕구하는 경우 기억에 의해 혼이 채워진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몸은 괴로워하나 혼은 즐거운 상태가 발생한다. 이를 두고 혼합된 즐거움이라고 이를 수도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 이것은 “조화 상태(31d)”를 회복하기 이전의 상태, 즉 욕구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이른다. 다시 말해 즐거움이 아니라 욕구의 상태인 것이다. 즐거움의 발생은 “자신의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때”, 세번째 부류인 혼합의 부류로 돌아갈 때, 한정되지 않은 것에 한정된 것이 혼합된 상태로 돌아갈 때 일어나며 이는 혼이 기억하는 조화로운 상태라는 상을 몸이 왜곡 없이 실현할 때 도달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기억에 의해 혼이 즐거워하는 경우에서 혼은 ‘생성’이라고 부를 만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해체에서 혼은 기억에 의해 즐거워하며 몸은 괴로워하고, 채움 이후에도 몸은 즐거워하며 혼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균형 상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혼이며, 균형 상태라는 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혼의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지각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플라톤은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에 대해 참된 즐거움인지 거짓된 즐거움인지를 명확하게 판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순수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점 뿐이다. 순수한 즐거움은 괴로움과 섞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즐거움만이 있는 현상을 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플라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할 뿐더러 절제하며 즐길 경우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을 지성과 혼합하여 좋은 삶을 만드는 바, 적도에 맞지 않는 신체적 즐거움이 아니라 혼이 기억하는 조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의 즐거움’은 일종의 참된 즐거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플라톤이 참되지 않은 즐거움을 지성과 섞었다는 모순적 결론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정리하면, 참된 즐거움으로서 회복의 즐거움은 혼과 몸이 각기 다른 상태를 겪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혼이 기억한 균형의 상태를 몸이 실현시킬 때 발생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것이 “자연 상태(31d)”에서의 조화라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곁여

되어도 고통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수한 즐거움과의 대비는 이후 논하도록 한다. 더불어, ‘순수함’은 ‘참됨’을 함축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좁은 범위를 가지는 순수한 즐거움은 이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도 한다.

두 번째로 참된 즐거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참된 예기적 즐거움이다. 예기적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몸을 통하지 않은 혼 자체의 즐거움과 괴로움이라 정의되며, 즐거움이 거짓될 수 있는 경우를 보이기 위한 맥락에서 언급된다. 이는 혼 자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이므로 우리는 몸의 개입이 없는 경우 즐거움의 참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혼의 욕구가 참된 것으로 판명되는 방식을 보다 명확히 목격할 수 있다. 예기적 즐거움을 다루기 직전 플라톤은 판단과 즐거움의 유비(37a)를 통해 거짓 즐거움이 가능함을 보인다. 기본적인 전제는 판단에는 판단되는 대상이 있고, 즐거움에는 즐거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양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즐거움’이라는 현상 자체가 실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37b). 그러나 ‘실제로 판단함’에는 참된 판단과 거짓된 판단이 있으나 ‘실제로 즐거워함’에는 참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플라톤은 판단과 즐거움은 모두 참과 거짓이라는 성질을 가짐을 보인다. 다음으로 플라톤은 거짓된 판단에 뒤따르는 즐거움을 거짓 즐거움이라고 비판한다. “종종 즐거움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 거짓된 판단에 뒤따라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37e)”라고 말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즐거움이 내재적으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판단에 기반한 것이기에 거짓된 즐거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후 그는 혼을 일종의 책과 비교(38e-39a)하며, 그는 즐거움의 거짓됨이라는 성질이 판단에 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 그려진 “글과 그림”의 참과 거짓을 다루며 즐거움이 사실과의 일치와 무관하게 내재적으로 거짓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흡사 예기쾌락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예상의 활동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기적 즐거움 또한 기억에 크게 기대고 있다. 예기쾌락이 발생하기 위해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 예측이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각들과 합치하는 기억이,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그 느낌들이 흡사 우리의 혼에

언젠가 말을 기록하는 것처럼 내게 보인다네. 그리고 이 느낌이 참된 것들을 기록할 때, 그로부터 참된 판단과 참된 진술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와 같은 기록자가 거짓된 것들을 기록할 때는, 참된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생긴다네(39a).”

판단과 진술에 미래라는 시간적 형식을 도입하면 ‘예측’이 된다. 그러나 판단과 진술이 유래하는 기록과 기록하는 기억이 과거의 것임을 고려하면, 미래와 관련된 글과 그림인 예기는 ‘미래를 향한’이라는 외연적 형태와 다르게, 근본적으로 미래가 아닌 과거와 관련된다. 즉, 그것은 미래에 대해 되는 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지각한 바를 기억하여 후에 기록한 바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하는 행위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적 범주라는 형식적 요소이며, 내용이 되는 기록된 글과 그림 자체는 동일하다. 가령 플라톤은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경우 “그 일을 것처럼 겪는다는 것이 필연적(39c)”이나 미래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밝힌다. 이를 판단과 진술에 적용할 경우, 후에 쓰인 ‘상’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내용상으로 동일하나 현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의 경우 실재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의 경우 그것이 상에 그칠 지 아닐지는 필연적이지 않다. 예기적 즐거움은 지각과 기억에 의한 기록들에 따른 판단과 진술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판단과 진술로서의 예측은 자유롭게 미래를 상상하는 무질서한 예측이 아니다. 참된 예측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누렸던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며, 즉 이미 일어난 몸과 혼의 느낌에 대한 혼의 기억이 필요하다.

프레데는 판단과 진술을 명제의 내용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본다. 또한 명제 내용의 참과 거짓은 미래에 사건이 발발했을 시 명제 내용과 사실의 일치 여부에 의해 검증될 수 있기에 즐거움의 참과 거짓이라는 성질은 미래 시간에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플라톤이 그러한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참됨의 조건으로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엄청난 황

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에 강렬하게 기뻐하고 있음을 본다네(40a).” 여기에서 한 사람은 자신이 황금을 가질 것이라는 ‘진술과 그림’을, 그리고 황금을 가진다면 자신은 매우 기쁠 것이라는 ‘진술과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음으로 플라톤은 실제로 황금을 가지게 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하는 대신 ‘진술과 그림’ 자체의 참과 거짓을 논한다. 자신의 판단과 진술이 참된 것일지 아닐지, 즉 현존을 가질지 아닐지는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기록된 ‘글과 그림’이 옳은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된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롭고 경건하며 전적으로 좋은 사람은 신이 사랑하지 않겠는가(39e)?” 그리고 우리가 “기대들”이라고 부르는 진술들과 그림들 중 “좋은 사람에게는 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들 가운데 대개 참된 진술들과 그림들이 주어지는 반면, 나쁜 사람에게는 대개 정반대의 것들이 주어진다(40b)”고 말이다. 나쁜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진 즐거움은 거짓된 것이며, 좋은 사람들이 가지는 참된 진술들과 그림들은 참된 즐거움을 낳는다. 즐거움의 참됨의 원천이 되는 참된 진술은 사실과의 합치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 그리고 성품에 따른 과거의 행위에 대한 기억에 의해 보장된다.

위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거짓된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은 내재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진다는 맥러긴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맥러긴에 따르면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거짓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며, 어떤 것과 거짓됨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 만으로도 그것을 좋은 것에서 배제하기에 충분하다(McLaughlin, 1969). 거짓된 판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감각(sensation)과 참된 판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감각은 유의미하게 다른 것이며, 고슬링과 케니는 두 즐거움의 구별을 추상화하는 이들로 비판된다. 맥러긴은 38a¹는 즐거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구절로 해석한다 즉, 어떤 판단에서 즐거움이 기인하느냐는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즐거움 자체의 성질을

¹ 옳은 판단과 지식에 뒤따르는 즐거움은 거짓과 무지에 뒤따라 생기는 즐거움과 차이가 난다.

규정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판단과 즐거움의 유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혼이 마치 책과 같다고 한다. 어떤 주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혼에 주장을 기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 글과 그림은 주장의 다른 표현이다. 예기 쾌락의 경우에도 사정은 같다. 상들을 동반하는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것처럼, 즐거움도 틀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쁜 사람은 거짓된 즐거움에 즐거워한다. 어떤 즐거움은 실재적이지만 거짓되었고,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좋은 삶에 포함할 수는 없게 된다. “플라톤은 거짓 즐거움에 동반하는 판단이 틀려서 즐거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 그 자체가 거짓이며, 거짓되었다는 것만으로 좋은 삶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플라톤에서 거짓됨은 그 자체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모순되지 않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McLaughlin, 1969: 60).”

결론적으로, 명시적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거짓된 즐거움이라고 판정되지도 않은 두 가지 즐거움에서 분별하는 혼의 욕구가 투명하게 구현될 때 욕구의 대상인 균형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에서 기억을 통해 욕구가 발생할 때, 참된 예기적 즐거움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각과 이에 대한 기억이 참된 경우이다.

3) 혼의 욕구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 적도에 맞지 않는 즐거움, 잘못 계산된 즐거움

다음으로는 혼의 욕구가 올바르게 구현되는 대신 몸에 의해 욕구가 오염되거나, 혼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플라톤이 명시적으로 좋은 삶에서 제하는 것은 과도한 즐거움, 해가 되는 즐거움, 혼과 몸의 나쁜 상태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즐거움이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렬한 즐거움들(63d)”은 “혼을 광기 상태로 혼란(63d)”시키는 해를 끼치는 즐거움이며, “어리석음과 그 밖의 나쁜 상태에 따르는 즐거움들(63e)”은 지성과 혼 합될 수 없다. 앞서 플라톤은 “엄격한 사람들”이 혐오하는 종류의 즐거움을 따라 강렬한 즐거움에 관해 논의하였다(45a). 필레보스의 가장 큰 적인 ‘엄격한 사람들’은 중립적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간주하며,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 플라톤은 그들의 논의를 일부 받아들여 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즐거움의 종류를 밝힌다. 이후 제시되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혼합된 종류로, 몸에서의 즐거움과 괴로움, 혼과 몸에서의 즐거움과 괴로움, 혼에서의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세 종류의 즐거움이다. 이들 중 엄격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은 어리석고 방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강렬한 즐거움(45e)이다. 이때 강렬한 즐거움은 혼과 몸의 나쁜 상태에 비례하여 커진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은, “엄격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싫어하는 불쌍사나운 질병들의 즐거움(46a)”은 육체적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령 몸에서 한 부분은 괴롭고, 다른 부분은 즐거움을 주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속에 끓는 상태나 염증을 가지고 있는데, 문지름이나 굽음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증상을 해소시킬 때(46e)”, 즉 분명히 괴로움이 있지만 즐거움이 우세하여 즐거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제시된다. “방탕하고 더 어리석을수록, 그만큼 더 그 즐거움들을 전적으로 늘 추구(47b)”하며, 이들 즐거움은 처음 발생한 괴로움에 비례하여 증가하기에 좋은 삶으로서 혼합된 삶에 포함될 수 없다. 정황상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신체적 즐거움이며, 욕구 또한 신체에서 기인하는 욕구로 보인다. 지성의 분별이 작용했다면 균형 상태를 지향했을 것이지, 단순히 즐거움의 양적 증가와 과잉,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균형의 와해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가장 큰 욕구들이 생길 경우에, 그것들에 뒤따르는 즐거움들이 다른 즐거움보다 월등(44b)”하다고 했을 때의 욕구는 혼이 아닌 몸이 주도하는 욕구의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욕구’라는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논의가 엄격한 사람들의 주장을 쫓아가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용어법의 차이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플라톤은 강렬한 즐거움을 “혼과 몸이 다른 상태에 있지만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섞임(47d)”이라고 평하는데, 이것은 앞서 몸은 괴롭고 혼은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몸이 혼에 따르며 생기는 즐거움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욕구의 대상이 균형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한다(47d)”고 하며 “혼과 몸이 다른 상태에 있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섞임(47d)”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이 ‘하나의 섞임’은 이전에 언급된 즐거움의 종류가 아니라, 육체적 욕구가 즐거움을 주도하여 애초에 몸과 혼의 상태가 합치될 여지가 없는 육체적 즐거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몸이 혼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이 몸의 욕구를 실현한다는 것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혼의 즐거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도에 맞지 않는 강렬한 즐거움은 몸의 욕구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어지는 즐거움의 종류는 혼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이웃의 나쁜 처지에 즐거워하는 악의적인 사람(48b)은 즐거움과 악의를 혼합함으로써 즐거움을 괴로움과 혼합(50a)하는 것인데, 이 경우 욕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즐거움은 균형 상태의 회복이라는 욕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논의에서 제한다.

부수적으로, 계산의 오류에 의한 즐거움은 욕구의 원인이 되는 혼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착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거짓된 즐거움이다. 내가 중요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즐거움이 내재적으로 가류적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이 시각과의 유비를 제시(41e)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를 분별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시각에서처럼 대상과의 거리가 아니다. 즉, 시각에서와 같이 인식자와 인식 대상의 거리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식 대상의 성질 자체(41b)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다. 즐거움은 그 자체로 괴로움과 대비되었을 때 크게 보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판단이 아니다. 앞서서 판단의 참과 거짓이 즐거움의 참과 거짓이라는 성질을 만들었다면,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을 대비했을 때 일어나는 착시 자체가 판단의 오류를 만든다. 나는 이를 욕구가 혼에 의하지 않고, 즐거움이라는 대상에 대한 지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 해석한다. 다르게 말해, 욕구가 혼의 균형에 대한 기억이라는 분별의 요소를 통해 중개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즐거움과 괴로움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욕구에는 오류가 발생하며,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비교에서 판단의 오류로 이어진다.

3. 순수한 즐거움과 상기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즐거움이 상기와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지적

하고자 한다. 대화편 말미에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순수한 즐거움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즐거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배움들에 대한 이런 즐거움들은 괴로움들과 섞이지 않은 것들이며, 다수의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속하는 것(34b)”이다. 예상 가능하게도, 플라톤은 이를 준거 삼아 순수한 즐거움을 ‘불가피한 즐거움’보다 좋은 것과의 닮음의 위계에서 높은 것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소 당혹스럽다. 플라톤은 왜 일반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의 즐거움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즐거움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소수의 즐거움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이 상기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플라톤이 순수한 대상으로 삼는 것들(순수한 도형이나 색, 소리, 냄새 등)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각적 대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배움의 즐거움에서 대상이 되는 지식 또한 가시적인 대상과는 부류가 다르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해 이들 대상을 받아들이나 여기에 일종의 추상이 작용하여 발견된 일반개념이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둘째로, 비움과 채움 등의 즐거움은 자연 상태에 따르는 와해와 회복임에 반하여, 순수한 즐거움은 자연 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운 것의 망각이 고통을 주는 것은 반성이 개입되었을 때라는 프로타르코스의 말에 대해, 플라톤은 순수한 즐거움에서 “자연적으로 겪은 일들 자체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것이네(52b)”라고 한다. 적어도 자연적으로는 배움의 망각이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톤은 순수한 즐거움의 경우 적어도 자연적 균형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배운 상태가 자연적 균형 상태라면 배움의 상실은 균형의 와해로 이어지며 괴로움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과 혼의 혼합으로 구성된 존재자들의 삶이 가지는 자연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상적 즐거움이라면 순수한 즐거움은 자연 상태와 관계가 적은, 가령 몸을 제외한 혼의 영역과 관련됨을 유추할 수도 있겠다. 셋째로, 순수한 즐거움에서 욕구의 동인이 기억이 아닌 상기에 의한 것이라면 왜 와해와 회복에서와 달리 결여가 지각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기억은 몸과 혼이 함께 느낀 것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몸이 포함된 지각의 활동, 따라서 이 생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상기는 순수하게 혼에 의한 것이고, 언젠가 혼과 몸이 함께 느낀 것을 혼이

홀로 되살리는 것으로 ‘느낀 바’는 우리의 삶에 지각으로써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몸과 혼이 동시에 느낀 지각을 보존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억과 달리, 상기에서는 지각의 보존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자연적 삶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지각과 지금 상태를 비교하는 과정이 없다. 이를 순수한 즐거움에서 결여에 대입하면, 과거에 지각되었던 균형 상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결여를 지각하는 경우와 달리, 순수한 즐거움에서는 과거의 상태라는 지각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과거와의 비교 또한 지각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지금까지 지성의 분별하는 활동인 기억이 욕구의 원천이 되며, 지성이 즐거움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에서 즐거움은 지성과 혼합되어 좋은 삶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존재와 생성의 쌍에서 즐거움은 부차적인 생성에 속하나, 원인의 부류에 속하는 지성을 향한 생성인 경우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혼합된 삶이 좋은 삶을 “꿈에서 깨어 기억”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별다른 의미 없이 추가된 수사적 표현이나, 논증의 타당성을 흐리는 당위적 표현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혼합된 삶”이라는 것 자체도 메타적으로 기억(혹은 상기)을 통해 욕구되는 것이므로, 좋은 것으로서의 지성과 즐거움이 혼합된 삶은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지향적 대상이 아니라 혼에 의해 욕구의 대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플라톤. 2020. 〈필레보스〉, 이기백.
오현석. (2015). 『필레보스』의 예기 쾌락과 거짓 쾌락. 철학연구, 110(1), 1-23.
Carone, G. (2000). Hedonism and the Pleasureless Life in Plato's "Philebus". Phronesis, 45(4), 257-283.
Fletcher, E. (2014). Plato on Pure Pleasure and the Best Life. Phronesis, 59(2), 113-142. Retrieved June 24, 2021.
McLaughlin, A. (1969). A Note on False Pleasures in the Philebu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1950-), 19(74), 57-61.

‘우리’라는 가면 뒤의 배타심

글 안연우

우리 가족, 우리 선수들, 우리 팀.

‘우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 앞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단어는 정다움, 따뜻함, 포근함과 같은 정서를 연상시키면서 강한 소속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나이, 종교, 성별, 국적, 신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태어남과 동시에 갖게 되는 권리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가 되게 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단어 속에 배타심이 숨어드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 다시 돌아보는 3년 전 그날

2018년 6월 경, 제주도로 유입되는 예멘 난민의 숫자가 500여명으로 급증하자 관련한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제주 난민 사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고, 예멘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난민이 되어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웠던, 이롭도 들어보지 못한 섬 제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제주도내 예멘인의 수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 명단에 예멘을 넣었지만 이미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생계 및 취업을 지원했고, 우리나라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라는 자부심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50만을 돌파했고, 공개적인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혐오의 물결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무슬림 혐오와 가짜 뉴스가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져 갔다. 형제애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은 그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었던 것인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민 찬성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고, 도리어 인권 보호라는 이상만을 쫓아,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다.

• 가짜뉴스와 외국인 혐오의 교묘한 공조

난민을 반대하는 몇몇 이들의 논리에는 난민에 대한 차별 의식과 편견이 전제 되어있었고, 이는 가짜뉴스에 힘입어 부풀려졌다. 가령 예멘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예멘 난민의 소망을 어떤 기자는 “한국 형편없어...돌아가고파”라는 제목의 기사로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했고,(제주 예멘 난민들 해외 인터뷰 논란...“한국 형편없어 돌아가고파”/디스패치) 제주에서 일어난 여성 실종 사건에 예멘 난민이 연루됐다는 기사(‘졸지에 ‘범죄도시’된 제주, 무책임한 어부정기사 씹쓸’/제주의 소리)는 명백히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를 술어만 바꾸어서 복사 붙여넣기 한 유사한 기사들이 물밀 듯 쏟아져 나왔다. 결국 해명 기사가 나왔음에도 난민들, 특히 무슬림 난민들은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위협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난민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그들이 가짜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했다. 난민이라는데 85%가 젊은 남성이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한다는 것이 수상하다는 점. 문화적으로 동화되려는 노력 없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고집하고, 전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난민으로 위장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접한 한 기자 출신의 예멘 난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젊은 남성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후터 반군과 정부군을 피해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와 가족들을 위해 제주로 피난을 온 것이고, 실제로 그들 중 상당수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정착한 후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중국산의 값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예멘 가족들과 틈틈이 연락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 코리야타운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들 간에 연결고리 정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가짜 난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제주를 찾은 것이고,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살기 시작한 이후 그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범죄 사건은 전무했고, 이전에

있었던 난민과 관련된 사건들을 근거로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일반화시키는 주장들도 전부 어불성설이었다.

• ‘우리’ 속에 숨어든 배타심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유독 ‘우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우리 문제도 시급한데 무슨 난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까지 보호해 줘야 하느냐”와 같은 말들이 그 예이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자국민을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한국전쟁,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참사 등 자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던 뼈아픈 역사를 통해 국민과 비국민을 경계로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모순된 일임을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때 상당히 많은 수의 난민을 배출하던 국가였고, 난민의 설움과 그들이 겪는 갖가지 인권침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하다.

• 외국인과의 공존, 우리의 현주소는

예멘 난민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은 국내에 난민과 외국인 문제라는 조금은 낯선 문제를 소개해 주었다. 예멘 난민 사태 이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외국인과의 공존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완전한 ‘우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한 예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총 다섯 차례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의 대상에는 이주민(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그 이름에서부터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고 있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이주민들은 똑같이 노동하고 세금을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권고를 내렸고, 인권위 발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뒤늦게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오늘날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난민들, 외국인들을 볼 때 '우리'라는 말 속에 숨어든 배타심을 지우고 사람 그 자체를 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적응된다면, 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교지 서강

2021년호 여름
81호

인류가 존속해야 하는가?

글 여경민

1. 서론

“이제까지 전혀 알려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에서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 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¹

한스 요나스 미래 인류의 존속과 인류의 유일한 터전으로서의 자연(지구) 파괴 방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미래 윤리의 제1계명으로 인류의 존속을 꼽을 만큼 인류의 존속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에 인간이 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인류가 다른 생물과 무엇이 달라서 인류의 소멸이 다른 종의 자연스러운 소멸과 다른 것인가? 그러나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인류의 존속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나오는 모든 격정거리를 털어버리라는 이러한 입장을 요나스는 “뻔뻔한 낙관주의”로 규정한다. 미래 인류의 존속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채 이처럼 뻔뻔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느낌, 즉 “인간의 경우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 즉 인간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 그러나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생각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인류 존속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가 되면 인류 존속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인류가 지구를 희생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구의 비극이 반복되어도 인류가 존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나는 요나스가 인류 존재의 당위와 미래 인류 존속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인류 존속의 우선성의 타당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5쪽.

2 이유태, 『요나스의 미래윤리와 책임』,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6., 135쪽.

2. 요나스의 주장: 비존재에 대한 존재의 존재론적 우위

요나스는 인간이 존속해야 하는 근거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은 도대체 어떤 무엇이-무 대신에-존재해야만 하는가의 물음으로 되돌아간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주어진 존재의 범위 안에서 제기되는 대안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것이 존재해야만 한다. 대안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 자체인 둘째 물음은 단지 절대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무와는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비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는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무에 대한 존재자의 절대적 우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존재는 모든 존재의 대안들 대신에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³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의 상태가 아닌 유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나스는 유가 무보다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유가 무보다 좋지 않다면 세상이 무의 상태가 돼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앞의 존재에 대한 비존재의 우위는 이런 저런 사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만물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었다. 생명의 존재의 당위는 생명의 목적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 자연은 목적 또는 목표로 가치를 설정한다. 목적의 형식을 유로, 무목적의 형식을 무로 간주하면 목적은 모든 무목적성에 대해 무한히 우월하다. 언제나 주어져 있고 추구되는 목적에 있어서 성취는 선이고 실패는 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언제나 자신에게 찬성하고 무에 반대한다. 생명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요나스는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생명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요나스는 죽음의 가능성이 생명체의 삶의 선택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생명체는 언제나 죽을

수 있음에도 자기 보존 행위를 통해 삶을 선택한다. 이는 생명체가 능동적으로 비존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만물은 존재해야만 하고, 생명체가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한다면 왜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의 존속이 아닌 인류의 존속을 강조하는가?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고,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연이 행하는 목적 노동의 최고의 결과로서 인간은 자유를 얻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목적의 설정과 선택을 허용할 수 있고 이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만이 오로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의 특성은 인간이 자기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체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고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고 요나스는 주장한다.⁵

정리하자면, 요나스에게 존재는 그 자체 안에 당위를 내포하고 있는 가치 개념이다. 무가 유보다 절대적으로 선하므로 만물은 존재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고 존재의 지속을 의욕하며 어떤 식으로든 목적을 설정하는 등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요나스는 죽음에 대한 삶의 ‘절대적’ 우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은 비존재에 대한 존재의 차이를 모든 가치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첫째가는 긍정으로 만든다.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평등하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았다.

³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리: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95쪽.

⁴ 같은 책 148-153쪽

⁵ 같은 책 179-180쪽

3. 요나스의 주장에 대한 질문(1)-유가 무보다 우월한가?

요나스는 유가 무보다, 삶이 죽음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요나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죽음은 악이다. 요나스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며, 그 후에 자연의 섭리에 대해 규범을 가지고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모든 죽음이 악이라는 요나스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어떤 생명체가 죽으면 애도를 하지만 이는 죽음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다. 사슴이 사자에게 먹혀 죽는 것, 노쇠한 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등을 악으로 규정짓는 것은 직관적인 도덕관념과 어긋난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악으로 여겨지는가? 도덕능력이 있는 존재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악으로 여겨진다. 인간이 정당방위 등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 인간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죽이는 것이 아닌 유희를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등이 악으로 여겨지는 죽음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이 악으로 규정지어지는 거의 기준은 자연의 섭리이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죽음만이 악으로 여겨진다.

또한 요나스의 주장은 무의 가치, 죽음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무는 생태계 유지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죽음에 대한 삶의 절대적 우위가 인정된다면 모든 생명체가 불멸의 상태가 되는 것이 최선의 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생명체가 죽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고 자연은 순환하지 못해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요나스는 불멸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⁷ 삶과 죽음, 유와 무 모두 각각의 가치가 있는데 삶이 죽음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이유는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존재가 비존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요나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같은 책 179쪽

7 같은 책 51-54쪽

4. 요나스의 주장에 대한 질문(2)-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하는가?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우선 인간은 실제로 다른 생명체를 책임을 질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인간이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해야 한다. 우선 인간의 책임 능력을 검토할 것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가? 요나스가 주장한 대로 목적 설정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인간이 책임 능력의 필요충분조건인가? 인간세상이 18세기부터 과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10만년이 걸린다. 태평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데는 몇 천년, 몇 만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납이 토양에서 전부 씻겨나가려면 3만5000년, 크롬은 그 두 배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류가 남긴 약 3만개의 핵폭탄의 플루토늄이 자연 상태의 배경 복사 수준이 되려면 25만년쯤 걸린다. 그러고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수많은 핵발전소와 싸워야 한다.⁸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되는가? 미래에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서 자연을 책임질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자연에 끼친 엄청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인간이 자연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인간이 책임능력을 갖는 것이 인류가 다른 생물보다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요나스는 인간이 책임능력을 갖는 것만으로 인간의 책임의 당위성이 도출되고 이는 인간이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책임능력을 갖는다는 전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옳지 않지만, 인간이 책임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인간이 우선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자연을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그 본질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굳이 파괴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8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2007.10.26. <경향신문>

애초에 파괴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결국 책임능력이 있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고,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이 돌이키기 힘들 만큼 환경 파괴만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지구에 더 좋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요나스의 인류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환경 파괴를 방관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던 내가 인류가 다른 생명체보다 특별하지 않고 인류가 없어지는 게 지구에게 더 좋다는 글을 쓰는 것이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그래서 다같이 자살이라고 하거나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을 모두 버리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저 현재 인간이 지구에서 저질러온,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온갖 만행이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생각해 보고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것 자체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세상이 아니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복잡한 글을 여기까지 읽어준 독자에게 감사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5쪽.
이유태, 「요나스의 미래윤리와 책임」, 『동서철학연구』 제36호, 2005.6., 135쪽.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2007.10.26, <경향신문>

문화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는 법

왜곡된 시선

미나리 그리고 우리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는 법

글 김민정

*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유행어들 중 소수는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문맥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나는 그중 몇 가지 단어들이 동일한 트렌드를 타다 관용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단어들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로 '손절', '거르다', '사이다'와 같은 단어이다. 완전히 다른 맥락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거르다'라는 말은 이전부터 쓰이던 단어가 보편화된 예이다. 반면 '손절'과 '사이다'는 기존의 의미에서 변질된 단어들이다. 먼저 '손절'은 본디 대를 이을 자식이 끊어진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주가의 하락이 예상되어,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이에서 변형이 되어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이다'는 어떠한 답답함 없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거나, 시원시원하게 대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쾌한 기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 단어들이 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사용이 되는 걸까?

이 단어들의 용례를 확인해보자. '친구 손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글이나 영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손절해야 하는 친구 유형 - 인간관계 정리하기, 걸러야 하는 사람', '안 맞는 친구 자연스럽게 손절하는 법', 이처럼 '손절'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을 내어 관계의 종식을 선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거르다'라는 말도 비슷하다. '사람 거르는 팁'과 같은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고, 게시글은 사람을 선별해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알려준다. 즉 '손절'과 '거르다'라는 말의 유행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극단적인 관계 방향을 맺는 방식의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잘잘못에 있어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다'는 이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 것일까? '사이다'와 함께 유행하고 있는 단어로 '참교육', '역관광'이 있다. '참교육'이란 죄에 대해 응징을 가하는 것이고, '역관광'이란 가해하거나 가해하려 한 이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들은

속이 땀 흘리는 결말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의 두 범주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보자. ‘손절’, ‘거르다’, ‘사이다’, ‘참교육’, ‘역관광’, 이 다섯가지 단어들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 제3자로 하여금 통쾌한 감정을 수반하도록 하는 단어들이다. 손절, 얼마나 깔끔한 마무리인가. 우리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단절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상대와 갈등을 겪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이다, 얼마나 속 시원한지! 잘못된 사람으로 하여금 응징을 가하고, 역관광시키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 이 단어들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어떠한 트렌드를 형성하며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왔다. 바로 ‘응징’ 트렌드이다.

*

응징 트렌드

대인관계에 있어 아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과 싸움을 겪어왔고, 갈등의 발생 및 해결 단계를 통해 꺾음 성장한다. 매번 충돌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 오래 알고 지내다, 시간이 흐른 후 불현듯 상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인간 관계는 칼로 베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발자취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갈등을 겪고, 다투던 경험은 때론 빙수에 얽어지는 인절미처럼 곱씹게 되는 맛이 있다.

“너 그때 기억나? 우리 싸웠던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사소한 건데…….”

다투었던 기억은 관계에서 강렬하게 박히기 때문에, 때론 그 기억으로 다시 언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을 안주거리 삼아 몇 시간이고 떠들게 된다. 갈등을 겪고, 충돌을 겪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때,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다듬고, 조율하다 보면 그 사람과 새로운 멜로디를 자아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응징 트렌드’가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상대방을 ‘거르는 것’, ‘손절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닥칠 끔찍한 대인관계 경험을 방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단호히 안녕을 고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때로 손절은 내 인생에서 반짝거릴 미래를 미연에 차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인절미처럼 감칠맛 나는 데코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빙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빙수를 접시째로 들어 화로에 올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완전히 진탕이 된 빙수를 보며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꼴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한 번만 더 얘기해보면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대체 왜 ‘손절하는 것’은 유행을 타고 있을까?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겁을 먹게 된 것일까? 모두가 21세기가 되자 다툼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일까? 말도 안 된다. 그보다는, 다툼과 동시에 불쑥 올라오는 ‘응징하고 싶다는 욕심’이 기저에 깔리게 된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조커의 복수에 속이 시원했는가?

이러한 욕심이 자리하게 된 데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거셌다. 많은 드라마, 영화들은 ‘사이다’를 주는 장면들을 뽑아냈고, 그러한 장면에서 오는 쾌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느린 전개나 상황에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함을 표출하고 그러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 통쾌한 콘텐츠들이 미디어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유쾌, 상쾌, 통쾌! 이 3가지 지긋지긋한 ‘쾌’로 쾌락을 주려고 노력하는 콘텐츠들. 이러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잘못된 쾌락을 가져다주었던 영화가 보편적으로

용인된 바가 있다. 바로 2019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영화, 토드 필립스 작 '조커'이다.

2019년의 대표 영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세계에서 많은 관객들이 찬사를 보낸 영화이지만, 나는 이 영화가 그다지 인기를 끌지 않길 바랐다. 이유는 영화의 결말이 너무나 유쾌했기 때문이다.

유쾌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영화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한 남자, '조커'의 인생을 조명한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작위적으로 안쓰러워서, 불행 포르노와 다름없어 보인다. 조커의 인생은 불행에, 불행에, 불행의 연속이다.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일만 당하고, 타인에게 경멸 받는 사람이 있을까? 조커의 배경을 계속해서 지켜본 관객들은 그가 자행하는 범죄를 이해하게 되고, 폭력적인 보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사이다'라는 감상을 받는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보복에서 상쾌함을 느끼는 게 옳은 것일까?

'복수', 특히나 '끔찍한 폭력적 형태의 복수'를 다룬 영화는 대부분 짹짹한 결말을 동반하고는 한다. '끔찍한 폭력적 형태의 복수'를 다루는 한국 영화의 예로 '친절한 금자씨', '악마를 보았다'가 있다. 두 영화 모두 악인, 즉 복수의 대상이 가진 악행을 조명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하게 한다. 그러나 끝내는 행복해지지 못한 주인공의 모습을 비춘다. 주인공의 복수가 결코 정당하지 않고, 폭력적인 복수를 통해서 그들이 빠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관객들은 그 영화에서 튕겨져 나온다. 정확히는 주인공에 대한 이입이 깨지면서 더욱 정확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복수의 통쾌함은 침잠하고, 엔딩 크레딧과 함께 남는 것은 복잡한 감정이다.

그러나 영화 '조커'의 결말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심플하다. 조커의 복수는 완벽했고, 정신병동에 감금된 이후에도 햇볕이 내리쬐는 병동을 탈출하며 즐거운 음악, 'That's life'라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밝은 화면과 함께 관객들은 상쾌하게 자리를 뜬다. 조커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짹짹함은 남지 않는 스토리와 연출이다. 바로 이 결말 때문에, 조커의

복수를 관객들에게 납득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이 영화는 실패했다. 폭력적인 보복을 합리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막대한 자본으로 투자되어 진행되었고, 관객들의 크나큰 호응을 받으며 대성공했다. 그의 복수가 통쾌했다는, 이해되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영화의 스토리가 가진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커를 관람한 인셀들이 흑여 테러를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관에 경찰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웃기는 양상이다. 역관광 구조를 통해 유쾌, 상쾌, 통쾌 삼박자를 즐긴 사람들과, 영화가 폭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를 대비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의 대비. 주인공의 감정을 이해한다며 그에게 동조하고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과, 그의 폭력에서 공포를 느끼고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서 또다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의 대비.

영화만이, 미디어만이 이러한 '사이다'의 유행을 낳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넷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에 인터넷 사이트도 트렌드 형성에 한 몫을 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민하는 글을 검색했을 때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댓글들.

'손절 안하고 뭐해?'

'답답ㅋㅋ호구네'

'야 사이다 갖고 올 거 아니면 글 쓰지 마 짜증나게 하고 있어'

넷상에서 단면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남긴 조언의 영향은 작성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 모두에게도 적잖은 선동이 이루어진다. '손절하는 것'은 작성자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깔끔하고 속 시원한 솔루션이기에 그 조언에 쉽게 납득하는 것이다. 그래, 나쁜놈이네. 아, 이럴 때는 손절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네. 나쁜 놈은 손절해서 끊어버리자! 그것이 완벽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여하튼 속시원한 결말이니 말이다.

*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어보자

‘통쾌함’이 사회를 지배하는 위기 상황이다. 관계의 절단은 전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통쾌함을 찾아 매체 속을 유람한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역관광, 사이다, 참교육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있다. 조커와 같이 범죄를 설득하는 영화가 공감을 사고 있고, 얼굴도 모르는 이가 건넨 ‘손절’이라는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거대한 유행은 도통 막을 내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들이미는 단순한 쾌락에 고개를 저어야 하고, 누군가의 질문에 또다른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관계에 숨통을 넣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가벼운 감정을 이용해 소비를 촉진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관계를 경험할 필요성이 있고, 풍부한 삶을 숨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 또한 결코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이 라면, 작은 변화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미디어를 소비함에 있어서 선택하게 되거나 혹은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상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절단면을 만들기에 앞서 한 번 더 이음새를 묶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새로워진 것이다.

당신의 세상이, 당신의 감정이 한 뼘 한 뼘 넓어져 많은 것이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초원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인다.

1. 서론

동북공정. 정확히는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다. 중국이 만주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며 현재 중국 지역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연구가 바로 동북공정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연구는 이제 끝이 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만주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¹ 우리는 이 행위를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원래 존재했던 역사를 왜곡해 잘못 전달한다는 비판이다. 최근 중국의 행보는 역사 왜곡에 박차를 가했다고 해도 좋겠다.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新 동북공정, 문화공정이라는 비판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² 이 글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짧게나마 개진하고자 한다.

2. 중국 역사 왜곡의 사례 : 한복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작년 겨울 <샤이닝 니키> 서비스 종료 이후이다. <샤이닝 니키>는 중국의 게임 회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아이 러브 니키>의 후속작이며, 전작과 달리 3D 모델링이 돋보이는 패션 코디 게임이다. 페이퍼게임즈는 한국 출시를 진행하면서, 유저를 모으기 위해 몇 개의 한복 의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한복을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명명한 것에 반발한 중국 유저와 중국 유저의 반발에 분개한 한국 유저의 갈등이 커지자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의상 파기를 공지했다. 이후에도 양국 유저 간의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자 페이퍼게임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게임 런칭 일주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아래는 페이퍼게임즈의 입장문 전문이다.³

¹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224063&categoryId=39994>

²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77776_28993.html

³ <https://cafe.naver.com/shiningnikkipaper/33372>

페이퍼게임즈는 게임 제작 회사로서, 유저들에게 좋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에 변함없는 초심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스타일링 게임을 통해서도 복식의 문화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복식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유저들에게 복식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중국 전통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함께 즐기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런칭을 위한 초기의 운영 계획에서도 “사봉궐”, “청자 비설”, “낙화음”, “투명한 옛꿈” 등 중국 전통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만면을 넘은 디테일을 연출하는 “사봉궐”이란 정교한 연극 의상을 통해 해외의 유저들도 중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절묘함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머리장식부터 문양과 자수까지,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해외 유저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관제도는 중국과 동일하다.”라는 관점을 밝힌 이하 문장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에게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은 초심을 고려해,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초에서 최대한 모순의 심화를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런칭 초반에 월드 채팅 채널에서 잇달아 출현한 과격적인 언론에 지속적인 주목과 함께 해당 지역 운영과 연락을 취해 최대의 권한으로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닝니키>의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종료 관련 안내입니다.

- 1,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 일시: 2020년 11월 5일
- 2, 게임 다운로드 및 결제 차단 일시: 2020년 11월 6일
- 3, 서비스 종료 일시: 2020년 12월 9일

<사이닝니키>운영팀
2020년 11월 5일

그 밖에도 중국 게임 회사 클릭터치가 2018년 출시한 <황제라 칭하라>는 중국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면서 2021년 4월 선보인 의상은 SBS 드라마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에서 주인공이었던 아이유가 입은 한복과 흡사한 한복을 게임 내에 출시했다. 색과 형태뿐만 아니라 자세마저 똑같이 논란을 빚었다.⁴ 또, 중국게임회사 퍼블리셔 X.D. 글로벌이 출시한 <후궁의 법칙>이 일부 청나라 복식을 한복으로 변경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장소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들었다.⁵ 다른 문화 콘텐츠도 다르지 않다. 드라마 <소주차만행>, <삼생삼세십리도화>에서는 시녀, 포로 등 신분이 낮은 배역에만 한복을 착용하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성화14년>의 남자 주인공이 착용한 망건과 모자는 한국의 망건과 갓을 닮아 문제가 되었다.⁶

4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71541>

5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70299>

6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1116800003>

3. 중국 역사 왜곡의 사례 : 김치, 삼계탕, 독립운동가

중국의 문화 침탈은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인물 등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12월 30일 중국인 유투버 리즈치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위 영상에서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해 김치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담겼고, 설명란에 중국의 음식, spicy Chinese cabbage라고 명명해 논란이 되었다.⁷ 이밖에도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는 삼계탕이 “광동식 국물요리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뒤 가장 대표적인 궁궐요리가 됐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밖에도 윤동주,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운동을 했던 위인들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고 소개해 문제가 되었다.

4. 한국의 반응 : 한복 광고

이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선보였다. 미국 이후에도 영국, 태국, 호주, 남아공에 소개될 영상은 조선왕실의 한복을 입은 주인공이 창덕궁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은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창덕궁의 아름다운 경치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이 사업을 추진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동북공정을 잘 역이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좋은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로 확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다.⁸ 또, 한복 브랜드 ‘리슬’은 SPA 브랜드 스파오와 협업을 추진해 생활 한복을 선보였다. 선보일 생활 한복 컬렉션은 대표 상품인 한복 로브를 포함해 10조의 의류와 노리개 장식 2종의 잡화류로 구성되어 있다. 위 프로젝트는 펀딩액 8억을 돌파해 국내외 사람들이 생활 한복에 갖는 관심을 입증했다.⁹

7 <https://youtu.be/W4hvneKcPZI>

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615&ref=A>

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6000076>

5. 한국의 반응 : K-POP

또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는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인 백종원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만들기를 고유 콘텐츠에서 선보였다. 위 영상에서는 파김치와 겉절이를 만들었고, 멤버들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간단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콘텐츠는 김치가 중국의 음식문화가 아닌 한국의 음식문화임을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는다.¹⁰ 한편, 중국 방송에는 자막이 ‘파오차이’로 나가 문제가 되었다.

6.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역사, 나아가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 지구촌 사회 같은 말이 일상에서 쉽게 쓰이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주는 소속감은 알아지고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간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보이는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화내고 사과를 요구한다. 혹자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틀렸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매국노,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왜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얼버무린다. 기껏해야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대답이 전부이다.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기에, 이하의 글은 민족주의적인 시선을 잠시 내려두고 역사와 문화가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전 세계적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외국에 나가서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세상은 아직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여전히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거리에 활보하도록 놔둔다. 동양인, 한국인이라는 우리의 출신은 서구세계에서 차별받는 정체성이다. 심지어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마저 인종차별적인 악플을 받는다.¹¹ 그런 차별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개인이 겪은 폭력과 지금껏 살아온 국가를 이루는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특성이 무시

10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07743>

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2022500007>

당했기 때문이다.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와는 별개로, 두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국가의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개인을 낮게 보고 폭력을 행사하고, 개인을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를 무시한다. 이 연쇄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왜곡이다. 중국이 행하는 역사, 문화에 대한 왜곡은 한국이 가진 전통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속국과 비슷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런 왜곡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 갖는 위치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조심해야지, 같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종차별 가해자이지만,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앓아지는 것은 개인이 인종차별에 맞서는 방법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비단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가 되는 21세기에서 아직도 각지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서 개인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그 전통이 갖는 상징성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각지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존재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아프리카의 내전 등 세계는 평화를 외치지만 여전히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 역시 이 대열에 발을 넣으려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역사, 문화의 왜곡은 한국 내의 반중 정서를 극대화한다. 특히 SNS나 미디어에 능숙하고 자주 노출되는 청년층의 경우, 중국을 선호하는 온도가 60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¹² 반면, 중국 안에서의 반한정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중국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줄도 몰랐다, 대부분 중국인이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¹³ 그러나 일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RBW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지우고 직원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하자 소속가수인 마마무의 앨범이 중국에서 팔리지 않아 판매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어 중국 역시 반한정서가

¹²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1>

¹³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78>

없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반중 정서와 반한 정서 모두 극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반성하고 자행하던 왜곡을 그만두어야 하고 한국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깊어지는 감정의 골은 곧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지향점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비판받는 이유와도 같다. 남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아 자국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든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를 제쳐놓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반응 중 몇 가지를 아까 살펴본 바가 있다.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기존 방식을 유지해가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중국과 한국이 사과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¹⁴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1&nNewsNumb=202108100017>

1. 원더풀 미나리 그리고 원더풀 윤여정

-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영화 내내 '원더풀'을 외치던 배우 윤여정, 그는 자신의 원더풀함으로 세계를 연이어 놀라게 했다. 영화 <미나리>가 지난해 초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윤여정은 약 30개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오스카'라고도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다.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며, 수상에도 성공한 유일한 배우가 되었다. 1957년 일본 배우인 우메키 미요시가 영화 <사요나라>로 수상한 이후 첫 동양인 배우의 수상이었다.

사실, 2018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 시상식은 백인 배우들만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연상은 백인 배우에게, 조연상은 가뭇에 콩 나듯, 흑인 배우에게 주는 것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이른바 '국룰'이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마치 동양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양인 배우들과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반발로 2016년에는 SNS에서 #Oscars___So___White라는 아카데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다. 그 해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상 후보에 유색인종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카데미 시상식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봉준호 감독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였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수상에도 큰 기대를 거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은 오히려 심드렁 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한다.

'아카데미는 매우 로컬(지역)적이잖아.'

백인 배우, 그리고 미국 영화가 아니면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던 아카데미의 행보를 센스 있게 돌려 말한 셈이다. 이 한 마디는 미국 전역, 아카데미 시상식에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되고, 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그 해 아카데미에서 영화

〈기생충〉은 국제 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영화 〈기생충〉이 찬사를 받고, 모든 배우들이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배우상에는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못했다.

산 넘어 산,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듯 했다. 이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다음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체념하며 돌아가려는 찰나, 영화 〈미나리〉의 미약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행보는 연이어 국내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화려한 막을 장식하며, 배우 윤여정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더불어 윤여정은 매년 채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폭소케 하며 또 한 번 주목받았다.

2. 동양인이 이해 못하는 동양인 과연 있을까?

- 영화 〈미나리〉는 가족 이야기지만, 가족 영화의 단골인 신파는 없다. 그 순간만을 오롯이 담아내는 담백한 장면들이 연속된다. 그 어떤 인물도 작위적이지 않으며, 우리 삶을 여실히 가져왔음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에 이입하게 되며, 가족을 떠 올린다. 영화 〈미나리〉는 한 가족이 매 순간을 살아내는, 살아가는 이야기다.

〈미나리〉의 눈 여겨 볼 특징으로는 동양인 스테레오 타입에 규격화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스테레오 타입은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의 동양인 스테레오 타입은 그 윤곽이 매우 뚜렷하다.

보라색 브릿지를 넣은 화려한 염색 머리, 범생이, 수학 천재, 무술 고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 동양인 캐릭터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거기서 거기이다. 당신이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 속에 떠 오르는 동양인 캐릭터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설정을 가진 동양인 캐릭터에 '익숙'할 뿐이지, '공감'할 수는 없다.

캐나다 CBS 방송사에서 방영된 시트콤인 〈김씨네 편의점〉은 한국 이민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극 중 '나영'이라는 한국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나영이 한국 여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적절한가?', '한국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오직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 문화와 동양인은 변질 될 수밖에 없다. 타자화 되어 버린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물론 동양 문화에 대한 무지 혹은 인물 구축에 있어 편리하다는 적당한 핑계로 미디어 속 동양인 스테레오 타입은 지금껏 용인되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 또한 혐오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인지 해야 할 때이다. 고정된 이미지는 편견이 되며, 현실에서의 혐오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방관만 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다행히 한국은 2019년 기생충에 이어 2021년 미나리까지 꾸준히 세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화 〈미나리〉는 획일화 된 동양인 캐릭터만 복제거리던 할리우드에 새롭고, 진정한 동양인의 삶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동양인 캐릭터는 젊은 여성 혹은 남성인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미나리에서는 생소한 한국인 할머니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전 세계에 한국 할머니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나리는 동양인 스테레오 타입에 대항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강한 미나리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보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후,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그 어느 때 보다 극렬하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 근교 체로티 카운티 에릭스 마사지 숍에서 잔혹한 총성이 들려왔다. 총구는 모두 한인 여성들을 향한 것이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인 애런 룡.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신의 SNS에 '중국은 우한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50만명의 미국인을 살상했다.' '중국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악' 이라는 글을 업로드 하며 중국을 향한 강한 혐오를

드러냈다. 그 외에도 길거리,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 한 장소에서 동양인을 타겟으로 한 혐오 범죄는 지금까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미나리’, ‘기생충’ 등 한국 영화가 선전하고 있는 영화계와 달리, 실제 동양인에게 놓인 현실은 여전히 삭막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Stop Asian Hate!’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일어난 집회에서 외치는 구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처음 집회가 열렸으며, 수 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종차별과 동양인 혐오 범죄 근절을 촉구했다. 이는 SNS 상으로도 번져 나가 해쉬태그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영화 <미나리>의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에릭남, 박준형 등 여러 유명인들도 SNS에 자신의 인종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며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다.

미국 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유구하게 이어져 온 인종 차별 문제를 한 순간에 뿌리 뽑기란 당연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을 역으로 잘 활용한다면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미국 정부는 수박 겉핥기 식 정책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종 차별 교육, 관련 법과 제도 등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 파급력이 상당한 미디어에서 동양인 인물을 다루는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미나리는 윈터풀이란다.’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대사이다. 삭막하고 척박한 현실에서도 결국 뿌리를 내리는 미나리처럼, 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들이 다시금 뿌리를 공고히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친다.

81호 편집위원 후기

01

코로나19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완성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

- 이지혜 -

02

'나의 결과물은 눈에 띄고 싶다'는
비평으로 교리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곧 박영은 양원 있네 매우 신이 납니다. >
비대면으로 진행 되었던 만큼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은 쓰여
하긴 싶은 만큼 한 모듬에게 두고
말씀하신 말 해두고 싶습니당~~

- 시모

04

처음 만든 교리에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다른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교리가 나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뿌듯하고 설렘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 리 정수아 -

05

~~교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교리를~~~~
다 완성할 수 있어서 도저히
뿌듯합니다!!

- 분라 -

03

교리서강에서 활동한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큰 한 편은 정성들여 써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다시금 느꼈고, 그래서 다음 글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06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제대로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 책을 읽고 줘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하세요! <

- 민정

07

우여곡절 끝에
표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유가형 -

08

글을 완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게 했습니다!!

09

코로나 팬에 언제까지
안나지도 못 하고 진행돼
아쉽습니다. 제 글도 용두사미가 돼
아쉽지만서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던 인터뷰 당시 분위기가
잘 전달되길 바라며.. 다음 발간도
지켜봐 주세요! - 한을